



사단법인 **인간개발연구원**

# 좋은사람 좋은세상

Better People Better World

2011.05+06

# 한국방송통신

Korea National Open

통권 제105호 (비매품) 등록번호 서울 마 03200 발행일 2011년 5월 5일  
발행인 정만기 편집 정용달 TEL 02-2203-3500(대) FAX 02-2203-1974  
디자인 하나로에드컴(www.hanaroad.com) 인쇄 (주)광진문화  
주소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4 동성빌딩 202호(www.khdi.or.kr)

## CoverStory 조남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지식의 생산·교류·나눔으로 교육복지 실현

머릿글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  
5·6월 프로그램

### Issue&Seminar

- 서정민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조은희 서울시 정무부시장

Hot&Issue 글로벌 온라인 비즈니스와 新 온라인 상인 한류를 위한 특별세미나  
세상을 보는 눈 송승용 (주)희망재무설계 이사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2기

### 회원&연구원소식

Welcome to KHDN

아카데미 뉴스

2011 제주섬머포럼

Special Focus 신항섭 미술평론가

### Membership Day

- 제8회 찾아가는 CEO 교실
- 제9회 찾아가는 CEO 교실

명사초청특강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발행인편지

홍원탁칼럼



성공하는 쇼핑습관

about

G마켓과 옥션이 만든 가격비교사이트  
www.about.co.kr

온라인 쇼핑의 좋은 예  
**어바웃**에서  
검색해서 **한번 더**  
할인된 가격으로 산다!



G마켓과 옥션이 만든 가격비교사이트 [www.about.co.kr](http://www.about.co.kr)

## 특별한 어머니에 관하여

강원도 산골에 사는 한 늙은 부부의 이야기가 텔레비전에 나왔다. 늙은 부부는 이들의 둘째 아들 부부가 젊어서 차례로 세상을 떠나 버리자 남겨진 어린 손자를 키우게 되었다. 이제는 장성하여 군에 가서 복무하다가 1박 2일 휴가를 얻어 고향집에 온 이야기가 펼쳐졌다.

칠십이 된 할아버지는 젊은 손자의 등을 두드리며 군 생활이 힘들지 않았느냐고 묻고, 손자는 힘들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산비탈에 걸아놓은 무쇠 솥에 집에서 키우는 닭 세 마리를 잡아 한약 재료를 넣고 손자를 위해 삼계탕을 끓여 내놓았다. 할머니는 손자에게 “몸보신을 해야지”하며 많이 먹기를 권했다.

리포터가 손자에게 마이크를 대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손자는 “나에게는 할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이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어머니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길지 않은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손자의 만남을 보면서 나는 손자가 말한 ‘특별한 어머니’라는 말이 머릿속에 빙빙 돌고 있었다. ‘특별한’이라는 말 속에 감추어진 사랑과 서러움, 그리고 그리움이라는 감각적 어휘들이 마치 날개를 단 듯 내 눈앞에 펼쳐지고, 그가 살아온 길에 겪어야 했던 모든 시련과 고통이 승화되어 ‘특별한’이란 말로 집약된 것임을 새삼 생각하였다.

흔히 가족이란 것을 혈연의 의미로만 해석하고 있지만 실로 혈연은 단순한 핏줄의 관계를 근거로 해서 인간다운 삶의 나은 세계로 가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느 해 대학 연구실에 앉아있는데 전화가 왔다. 받아보니 어머니의 전화였다. 어머니는 다급한 목소리로 고등학교에 다니던 남동생이 아프다며 집에 왔는데 심상치 않다고 했다. 나는 부랴부랴 책가방을 싸들고 집으로 달려갔다. 동생은 안방에 누워있었다. 이마를 짚어보니 열이 나서 뜨거웠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이렇게 되었냐고 묻는 말에 동생은 말하기조차 힘든 듯 말라버린 입술로 “그냥”이라고 대답했다.

어머니는 어제 이놈이 한숨도 자지 않고 공부를 하고 아침도 먹지 않고 학교에 갔다가 중간에 친구의 부축을 받으며 돌아왔다고 했다. 어머니는 병원에 가야 할 텐데 토요일이라 병원 문을 연 곳이 없으니 어찌하느냐고 내 얼굴을 보았다.

나는 동네 병원을 찾아갔다. 자주 가본 병원이라 의사와도 얼굴이 익어서 왕진을 부탁하면 들어줄 것 같았다. 몇 번 문을 두드리자 의사가 얼굴을 내밀었다. 나는 동생의 이야기를 하며 왕진을 부탁했다. 의사는 “쉬는 날인데”하면서 어이가 없는 듯이 조르는 나를 한참 보더니 까만 왕진가방을 들고 나섰다.

의사가 동생을 진찰한 후에 주사를 놓고 가면서 병원에 따라와서 약을 받아가라고 했다.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왔다. 그리고 안방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를 껴안고 “아이고, 잘했다”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나는 어머니가 왜 우는지 몰랐다. 그날 밤 내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의사를 모시고 왔드냐?”하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무나 씩스럽고 어색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사건은 부모에게 형제 간의 우애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는지 항상 형제는 도와가며 살아야 한다는 말을 할 때마다 ‘형처럼’이라는 접두어를 만들어 냈다. 나는 부끄러웠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네 명의 동생에게 언제나 형이 의지처가 되리라는 생각을 심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제 미국에 있는 아들과 통화를 하다가 아들이 손녀를 바꾸었다. 손녀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가 누구냐고 물었다. 아홉 살 된 손녀가 “family”라고 했다. 나는 장난스럽게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 영성찬 질문에 손녀는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사랑해야 해요”하고 대답을 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멍하게 앉아있었다. 아홉 살짜리 손녀의 “가족은 사랑해야 가족이 된다”는 말이 가슴에 꽂혔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나가 고생하는 이유를 나와 가족을 위해서라고 하면서도 가족과의 연대를 이어주는 사랑의 구현방법에 서툴러 가족 서로 간에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은 가족 안에서 자라고, 가족 간의 사랑의 소통은 행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박동규**

### ●박동규 교수

1939년 생으로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국문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62년 현대문학으로 데뷔해 많은 저서를 냈으며,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04년까지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명예교수로 있다. SBS 라디오 '박동규의 문학산책'을 진행했으며, 문화체육부 산하 문화복지기획단 단장, 해변시민학교 운영위원장으로도 활동했다. 현재 월간 時전문지 <心象>의 발행인으로도 활동 중이다.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 ■ 피터 드러커의 고슴도치 기업이론과 여우 혁신전략

제1691회 5월 12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이재규 前 대구대학교 총장

2003년 필름제작의 대표 기업 코닥은 연매출이 130억 달러로 급락했다. 당시 회장이었던 안토니오 페레즈는 '필름 시대가 끝난 사실을 코닥만 몰랐다'며 '코닥은 기업이론을 바꿀 시기를 놓쳤다'고 한탄했다.

21세기 글로벌 기업들은 저마다 각자의 핵심 경영전략과 이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 중 몇몇은 성공 가도를 향해 달리고, 몇몇은 몰락한다. 그럼 과연 우리 기업에는 어떤 이론과 전략이 적합할까?

20세기 가장 위대한 경영학자로 통하는 피터 드러커는 기업을 '고슴도치'와 '여우'에 비유했다. 아르킬로코스의 '여우형-고슴도치형 인간'과 이사야 벌린의 '방법론의 여우-원칙론의 고슴도치'라는 전략 분석을 대입한 것이다. 일명, 고슴도치 기업이론과 여우 혁신전략의 탄생이다. 즉, 고슴도치처럼 한 가지만 잘하는 기업은 '성공의 함정'에 빠질 수 있으니 변신해야 하며, 여우처럼 다양한 것을 알지만 알게 아는 기업은 잘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의 이론으로 본 코닥은 '우물 안의 고슴도치'였던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피터 드러커의 '인생경영'을 비롯해 수십 편의 드러커 관련 저서와 논문을 집필하며 드러커 전문가로 통하는 이재규 전 대구대 총장을 초빙하여 우리 기업의 성공을 이끄는 고슴도치 기업이론과 여우 혁신전략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대 상학과 졸업 | 서울대 경영학 석사 | 경북대 경영학 박사  
|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주립대 교수 | 대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총장 | 한국인사조직학회 부회장 |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 대구은행, 한국전기초자, 영원무역 사외이사 | 한일경상학회 이사 | 한국경영사학회 이사 | 한국드러커협회 대표

〈상훈〉 전경련 출판문화상, 대구대 인문사회분야 학술상, 청조근정훈장

〈저서〉 피터 드러커의 고슴도치 기업이론과 여우 혁신전략, 피터 드러커 경영 키워드 365, 피터 드러커의 인생 경영, 노년의 탄생, 지식근로자(피터 드러커의 인간관) 외

## ■ 사회를 책임지는 노인

제1692회 5월 19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이심 (사)대한노인회 회장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를 겪고 있다. 국가 흥망성쇠의 역사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라는 중대 과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 가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당장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어렵다면, 노인들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제활동인구를 보충하는 역할로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에 노인들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한다.

국내 최대 규모 노인단체인 대한노인회의 이심 회장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들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계층이 아니라 함께 사회를 끌고 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책임을 당부한다. 10명 중 3명이 노인인 사회에서 누가누구를 부양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노인들 스스로 권리주장보다 봉사하는 마인드를 가질 때 노인사회를 보다 젊게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전국 16개 시도연합회, 245개 시군구지회, 그리고 전국 6만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260만 회원으로 구성된 대한노인회를 이끌고 있는 이심 회장을 초빙하여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한노인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국가발전의 동력으로서 노인들의 사회적 책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건국대 법학과 졸업 |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부참사 | 월간 현대주택 발행인 | 주간 한국주택신문 발행인 | 월간 하우스다이제스트 발행인 | 월간 전원속의 내 집 발행인 | 한국잡지협회 회장 | 노년시대신문 발행인, 회장 | (주)주택문화사 대표이사 및 회장 | 국가원로회의 위원 | 제주 세계7대자연경관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홍보대사

〈상훈〉 제26회 잡지의 날 국무총리표창, 대통령표창, 한국잡지전문 유공상, 제40회 정부포상 은관문화훈장, 제3회 서울대 국가정책인 대상 외

〈저서〉 좋은나라 노인은 걸음도 예쁘대(공), 노년의 아름다운 삶 (공) 외

# 5·6월

## ■ 2011 중국 시장의 기회와 도전

제1693회 5월 26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김용준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세계의 모든 자본과 재화들이 몰려드는 중국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다. 중국에서 1위 제품은 금세 세계 1위 자리를 거머쥐기도 한다. 한국도 중국이라는 지리적 특수로 인한 유리한 영향을 받았고, 동아시아시대의 비전을 함께 꿈꾸면서 실행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이 중요하기에 중국시장의 기회와 도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12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 주요 안건으로 내수 확대, 신형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구조 조정, 도시화, 지역 간 공동발전 도모, 지속가능성장, 공공서비스 보안을 통한 사회관리 강화와 사회 안정 촉진,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보완, 대외경제 발전방식 전환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중국이 7대 산업으로 발표한 친환경기술, 차세대정보기술, 바이오기술, 신에너지, 신소재, 첨단장비제조, 신에너지 자동차 등은 한국과 끊임없는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실패를 겪기도 하지만 어떤 기업들은 최고의 실적을 이루어내기도 한다. 2010년 상하이 소재 외국기업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기업이 한국기업이다. 과연 그 성공과 실패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번 연구회에서는 중국전문가인 김용준 성균관대 교수를 초빙하여 현대 북경차, 이랜드, CJ오쇼핑, 넥슨차이나 등 한중기업 사례를 통해서 중국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 美 텍사스대 경영학 석사 | 美 노스웨스턴대 마케팅 박사 | 중국 칭화대학교 객좌교수 | 삼성오픈타이드 차이나 사장 | 홍콩중문대학교 객좌교수 |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Asia-MBA 부원장, 현대중국어연구소 소장 | 한국마케팅학회 상임이사 | 한국광고학회 부회장 | 한국국제경영학회 상임이사  
<저서> 경영학 뉴패러다임: 중소 벤처기업 마케팅, 인터넷시대의 마케팅 전략기획, 차이나마케팅, 중국의 지역성과 중국 소비자와

## ■ 스마트 코리아로 가는 길: 유라시안 네트워크

제1694회 6월 2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이민화 한국디지털병원수출조합 이사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가정신'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기업가정신이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방안이자 미래 성장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저성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국사회도 기업가정신에서 그 해법을 찾고 있다.

이민화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대표적인 기업가정신 전도사로 꼽힌다. 이 교수는 '기업가정신 회복-사람중심경영-사회적 벤처창업'의 선순환구조에 한국경제의 미래가 있다고 이야기 한다. 그는 1991년 국내 최고의 벤처기업인 메디슨 창업, 벤처협회와 코스닥 설립 주도, 벤처기업특별법 제정, 최초 기업호민관 역임 등 한국 벤처의 산증인이다. 벤처 1세대로서 지난 20여년간 벤처의 성공과 좌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그의 발언에는 힘이 실려 있다.

그런 그가 최근 '디지털병원을 키워드로 의료산업 분야에 눈을 돌렸다. 공식적으로는 10년 만의 컴백이다. 그가 컴백 카드로 디지털병원을 꺼내든 이유는 뭘까. 디지털병원은 IT와 의료서비스를 결합한 융합산업으로 한국의 우수한 의료시스템과 기술 수출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국무총리 위촉 기업호민관을 역임한 이민화 한국디지털병원수출조합 이사장을 초빙하여 유라시안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한국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 석박사 | 메디슨 대표이사 사장 | 벤처기업협회 초대 회장 | (사)유라시안 네트워크 이사장 | 중소기업청 기업호민관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빙교수  
<저서> 한경영(공), 21세기 벤처대국을 향하여(공), 한국벤처산업 발전(공), 초생명기업(공), 스마트 코리아로 가는 길: 유라시안네트워크(공)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 ■ 저출산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제1695회 6월 9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저출산 고령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와 기업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 노동공급 부족, 생산성 하락, 내수시장 위축 등 기업의 경영환경도 악화될 것이다. 저출산을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출산 양육비 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환경을 꼽는다. 이 중 출산 양육비 부담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개선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를 변화시키는 데는 기업의 참여가 결정적인 만큼 CEO의 전향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 여건을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우호적으로 개선하면 부모들에게는 출산과 양육의 기쁨을, 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 및 내수기반 확충을, 국가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이라는 선물을 가져다줄 것이다. 최근 유한킴벌리, 하나은행, 포스코, 아시아나항공 등은 모범적인 직장 보육시설 설치와 육아 지원, 유연근무제 등을 실천해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보육비 지원, 출산장려금, 조기퇴근제 등의 가족친화경영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기업의 지속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초빙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 마련과 함께 기업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문화 및 제도 수립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 美 인디애나대 사회학 석사 | 美 일리노이대 시카고캠퍼스 철학 박사 | 제17~18대 국회의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 국회 여성정책포럼 대표 | 한국아동인구환경의원연맹(CPEI) 부회장 |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 | (사)초록자전거물결운동 회장 |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소 소장

〈저서〉 여성과 실업, 교육·이제 슬직해지자

## ■ 디지털시대의 뉴 패러다임

제1696회 6월 16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이금룡 코글로닷컴 회장

무엇이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가? 바로 혁신과 창조다. 혁신은 기존 질서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창조는 없었던 시장을 개척하는 일이다.

창조에는 혁신이 중요하며, 이 혁신은 분명히 성공하리라는 확신을 말한다. 혁신은 어떠한 원칙보다도 우선해야 한다. 확신 없이는 어떠한 원칙들도 진가를 발휘하지 못한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경쟁원리부터가 다르다. 0에서 9까지 포함하는 10진법으로 이루어진 아날로그와는 달리 0과 1 두 가지로만 이루어진 디지털은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이다. 남과 다른 창조로 1등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스마트시대는 자본, 노동보다 아이디어와 인재가 중요한 시대이다. 과거 대량 광고로 인한 물량공세보다 고객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스토리텔링이 더 효과적이고, 고객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고객감동 마케팅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스마트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가정신을 길러야 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벤처 1세대로 인터넷 경매사이트 옥션의 대박신화를 일궈냈던 이금룡 코글로닷컴 회장을 초빙하여 디지털 중심의 스마트시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비법 9가지를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 동국대 국제경영학 석사 | 삼성물산 인터넷사업부장 이사, 인터넷사업팀장 | 인터넷경매 대외총괄담당 사장(1999년 10월 인터넷경매가 옥션으로 개칭) | 한국인터넷기업협회(KICA) 1, 2대 회장 | 제2기 정보화추진자문위원 | 옥션 대표 이사 사장 |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 B2B e마켓플레이스협의회 1, 2대 회장 | 이니시스 대표이사 사장 | 디지털경제연구소 소장 | 원천기술수출협회 의장 | (주)오픈옥션 회장

〈수상〉 제4회 정보통신의 날 석탑산업훈장

## ■ 내가 겪은 6.25와 大韓民國

제1697회 6월 23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백선엽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

지난 2010년은 6.25 전쟁이 발발한지 60주년이 되는 해였다. 동시에 천안 함 사태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은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에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기억된다.

2009년 행정안전부가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25 전쟁 발발 연도를 묻는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무려 36.9%나 되었다. 특히 2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56.5%로 가장 많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6.25 전쟁이 후손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4성 장군이자 6.25 전쟁의 살아있는 영웅, 백선엽 장군은 "역사가 없으면 그 나라의 미래도 없다"며, "동족간의 비극적인 6.25 전쟁을 항상 기억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휴전국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아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평안남도 출신으로 해방과 함께 월남해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주역으로 참여했으며,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을 맞아 낙동강 방어전투, 38선 돌파작전 등 최선봉에서 지휘관으로 부대를 이끌었던 백선엽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을 초빙하여 6.25 전쟁의 빼어난 역사와 참전용사들의 거룩한 살신성인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북한 평양사범학교 졸업 | 중국 만저우군관학교 | 제1사단장, 제1, 2군단장, 제1군사령관 | 제7, 10대 육군참모총장 | 제4대 연합참모회의 의장 | 駐 중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대사 | 제19대 교통부 장관 | 한국후지쯔 고문 | 6.25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상훈〉 태극무공훈장, 금탑산업훈장, 미국 은성무공훈장, 필리핀 사령관훈장, 미국 공로훈장, 제2회 자유수호의상, 캐나다 무공훈장 외

〈저서〉 한국전쟁 일천일, 부산에서 판문점까지, 실록 지리산, 내가 물러서면 나를 쫓라 1, 2차

## ■ G2시대! 한중일분업구도의 변화

제1698회 6월 30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송병준 산업연구원 원장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한중일 3국간의 분업구조와 앞으로의 협력방향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중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른바 G2시대를 열어가고 있고, 중국 경제가 부상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의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은 우리의 많은 주력산업 부문에서 기존의 한중 보완관계를 상호 경쟁관계로 변화시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수출주도형 성장 패턴에서 벗어나 내수확대 전략을 병행함으로써 우리의 새로운 거대 소비시장으로도 부상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중국 경쟁산업의 부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국 거대시장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은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제2의 무역대상국이며, 핵심 부품소재의 주요 수입대상국이다. 양국 경제의 공동발전과 통합아시아경제의 주도권 공동장악을 위해 핵심기술과 소재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 기업들과의 협력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세계경제의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한국의 실정에 맞는 산업발전 비전과 필요한 산업정책을 제시하는 산업연구원의 송병준 원장을 초빙하여 중국의 부상으로 급변하고 있는 '한중일 분업관계', 나아가 '세계 분업구조-한중일 분업구조'를 전망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 美 뉴욕주립대 경제학 석·박사 | 美 존스 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방문교수 | 산업연구원 기계산업연구실장, 자본재산업연구실장, 지식산업연구실장, 성장동력산업실 선임연구위원 | 기획재정부 정책평가위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한국노동경제학회 이사 | 지식경제부 온실가스-에너지관리위원회 위원 |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저서〉 한국산업의 대해부(공), 2020 유망산업의 발전비전과 전략(공), 주력산업의 인력 고령화 전망과 대응방안(공) 외



중동은 한 마디로 '죽어야 바뀌는 정권'이다. 평화롭게 정권교체가 일어날 수 없다. 그런 곳에서 민주화혁명, 민주화시민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 또 이것이 중동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인류에게 이로운 일이다. 다만 그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제1682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 중동 민주화사태로 본 한국의 새로운 진출 전략과 대응

## 중동 민주화사태는 아랍판 프랑스 시민혁명

이번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집트만 해도 하루 2달러 미만의 돈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40%, 3천만 명이 넘는다.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와 곡물가격 폭등 등 전반적인 생활고가 이번 사태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된다.

두 번째 원인은 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이다.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 일가의 은닉 재산이 700억 달러라는 이야기가 있다. 리비아 카다피 일가의 재산은 1500억 달러라고 한다. 이처럼 일부 기득권층, 최고 권력자들의 엄청난 부패와 독재가 문제다.

이집트에서 정치학 석사 공부를 할 때 대학원 수업에서 한국의 민주화



경험에 대해 발표한 적이 있었다. 발표 후 동료들에게 “우리는 경찰력이 강해서 못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다. 경찰력이 강해서 감히 데모를 할 수 없다는 마인드가 이번 사태로 인해 깨지게 되었다.

이 마인드는 이집트 고왕조 이후 5천년 역사 속에 그들의 뇌리에 있던 마인드이다. 이번 사태 초반 튀니지가 붕괴했을 때 중앙일보 시론에 ‘중동의 민주화 사태는 아랍판 프랑스 시민혁명’이라고 썼다. 많은 분들이 그 글을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

왜 아랍판 프랑스 혁명이라고 했을까? 그 전에 왜 중동의 정치학도들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마인드를 가지게 됐는지 이해해야 한다. 중동의 아랍문화는 유목문화이다. 유목민은 오아시스나 우물을 따라 일정 지역을 순회한다. 힘이 센 부족이 더 많은 우물을 갖기 때문에 유목민에게 우물을 빼앗긴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항상 무장을 하며, 이로 인한 전투 준비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결국 가장 힘센 가문의 어른이 가족과 부족 전체의 리더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한다.

그런데 무력을 존중하고 물리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더 강력한 무력이나 물리력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진다. 아랍인들의 습성이 그렇다. 그래서 요르단 국왕은 외국의 손님을 맞는 자리에 군복을 입고 나간다. 그는 군인 출신이 아니다. 하지만 군복을 입은 모습을 방송에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무력을 과시하고 국민들에게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단 한 차례도 이러한 물리력에 저항하는 사태가 없었는데, 21세기에 들어 이번 사태가 터진 것이다. 아랍인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더욱 확산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슬람적인 권위적 체제를 바꾸었다. 이슬람의 원래 어원은 평화로, 샬롬과 같은 어원이지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알라에게 복종하고, 무하마드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슬람의 권위주의가 이번 시민혁명으로 무너지고 있다. 자신들이 5천년 동안 유지했던 전통, 1400년 동안 믿고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슬람의 이념, 사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혁명의 특징은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민족적이다. 종교적인 시민혁명이 아니다. 그래서 아랍권의 전통적 마인드를 바꾸는 사상혁명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혁명은 아랍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전 세계에 남아있는 남성중심 권위주의의 종말을 고하는 역사적인 획을 긋고 있다. 남성이 주도하던 사회에서 정권을 교체하는 시위에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전 중동권으로 확산될 것이다.

## 이슬람에 대한 편견으로 중동 보면 안 돼

이번 사태에 이슬람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집트가 혁명에 성공하면서 서구의 많은 학자와 언론들이 무슬림혁명제단이나 이슬람세력이 집권하거나 민주화혁명이 이슬람화 하면 어떡하나, 이란처럼 되면 어떡하나 많은 우려를 했다. 그러나 지나친 우려에 불과하다.

이슬람에는 시아파와 수니파가 있는데, 신정정치를 하고 있는 이란은 시아파이다. 시아파는 이슬람 전체 인구의 10%이고, 이집트나 사우디는 모두 수니파이다. 우리는 지나친 우려의 눈으로 중동을 바라보고, 이슬람이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실제 이슬람이 중동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많지 않다.

이집트를 예로 들어 보자. 이집트는 생활고에 정치도 어려워 결국 붕괴되었다. 그런데 이집트의 정치체도는 유럽의 공화정이다. 이집트 법도 이슬람법은 가정법원에서 쓰는 3% 정도에 불과하며 모두 독일의 실정법을 가져왔다. 이슬람 경제도 과거 나세르 정권은 사회주의, 사다트 정권





은 개방 자본주의, 무바라크 정권은 중간노선이었다. 이집트 금융도 이슬람금융이 아니라 95%가 컨벤셔널 뱅킹이다.

1400년 이슬람 역사에서 시아파의 이란을 제외하고는 단 한 차례도 종교가 왕권 위에 올라선 적이 없다. 무하마드는 두 가지 원칙을 만들었는데, 이슬람 수니파에는 성직자가 없어서 아무나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하고 있다. 두 번째 원칙은 최근 스쿠크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11조로써 자기 수익의 2.5%를 내는 것인데 이 돈을 아무에게나 줄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종교기관에 사람이 없고 돈이 없는데 왕권 위에 올라설 수 있을까? 이런 맥락을 모르고 중동이 모두 이슬람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이다.

다만 자유 평등 선거를 통해서 무슬림형제단이 집권당이 될 수는 있다. 그들이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터키 모델이 될 것이다. 터키의 집권당은 이슬람당인 정의개발당이다. 그러나 터키가 이슬람법으로 바꾸거나 정치를 이슬람화 하지는 않는다. 하나의 사회적인 운동으로 남아있는 것이 이슬람이다.

### 리더가 없는 SNS혁명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성격은 바로 SNS혁명이라는 점이다. 이번 혁명에는 리더가 없다. 중국과 북한이 긴장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과거에 혁명이라는 것은 민족주의 지도자나 소수민족 지도자, 이념적 지도자 또는 큰 이념의 틀이 있어서 혁명의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 등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시위사태에는 리더가 없다. 그런데도 혁명이 정권교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혁명의 틀이 등장한 것이다. 시민들의 손바닥에 자신들이 정보를 만들고 전파하고 소통해서 이를 파고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양상의 권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21세기 SNS의 역할이다. 1980년대 동구권이 무너졌을 때 많은 학자들이 다음 차례는 아랍이라고 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아랍과 민주화'라는 책이 수없이 출판되기도 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 때도 아랍권에 빈곤은 있었고 독재와 부패한 정부가 있었고, 지금도 큰 차이는 없다.

그런데 왜 21세기에 들어서고도 10년이 지난 지금 이런 혁명이 일어났을까? 개인의 소통수단이 생겼기 때문이다. 튀니지에서 시위가 처음 발생했을 때 아랍권 22개국 사람들은 24시간 방송을 통해 시위를 지켜봤다. 확산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혁명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중국과 북한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거에는 언론 통제가 됐지만 이제는 언론 통제가 안 된다. 이것이 21세기 새로운 혁명과 새로운 시민운동의 모델이 되고 있다.

### 중동의 다양성과 다원성 확대될 것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중동이 크게 변할 것이다. 이집트는 그동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중재자 역할을 해왔는데, 한 동안 그 역할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이집트가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전면에 나섰지만 앞으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셋째, 이란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시아파 초생달'이라는 말을 만들어 언론에 소개한 적이 있다. 이란 옆에 이라크가 있다. 이란은 시아파 국가이고,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되면서 시아파 정권이 들어섰다. 이라크 옆에는 시리아가 있다. 시리아는 국민은 수니파, 지도부는 시아파에 가깝다. 그 옆으로 있는 레바논은 헤즈볼라라는 무장 시아파 정치세력이 있다. 이란을 중심으로 서쪽으로 축을 이루고 있다. 이란 아래쪽으로는 십나라 바레인인데 시아파가 70%이다. 그 옆으로 쿠웨이트가 있다. 이렇게 시아파의 세력권이 초생달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

시아파의 패권이 점점 남하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주던 축이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였다. 그런데 이집트가 붕괴됐고, 사우디도 반정부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국내 문제로 바빠지기 시작했다. 결국 이란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란은 이번 사태가 시작되자 수에즈운하에 군함 2척을 통과시켰다.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처음으로 준비하는 해상훈련이다. 또한 터키 총리를 초청해 양국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은 민주화나 개혁, 인권보다는 현상태의 유지를 원한다. 에너지 이권, 미국의 군수산업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중동이기 때문이다.

이번 민주화혁명의 끝은 다양성과 다원성이다. 예전에는 모두 독재였지만 중동국가들의 형태들이 다양해질 것이다. 기존 정권이 무너졌지만 똑같은 민주화를 하지는 않는다. 다원성도 생길 것이다. 예전에는 국왕이 결정하면 끝이었다. 일부 소수가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의회가 생기고 시민사회가 생길 것이다. 한 국가 내에서는 다원화가 진행되고, 전체 지역에서는 다양성이 생기는 것이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많이 나온 얘기다. 오일쇼크는 당장은 아니지만 고유가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오일쇼크의 가능성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점이다. 튀니지나 이집트의 경우 이제 혁명이 끝났을 뿐이다. 민주화 작업은 이제 시작이다. 지금부터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민주화경험이 없어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으면 아무리 빨라도 3~5년이 걸린다. 그렇다면 앞으로 붕괴될 나라도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불안정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중동이 민주화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느끼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10년 동안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렌티어 이코노미(Rentier Economy)도 모두 붕괴될 것이다. 렌티어 경제가 국가 주도형 경제구조를 만들었고, 결국 이것이 중동 민주화를 막았다. 앞으로 중동 경제는 과거의 성장에서 분배로 가는 구조로 바뀔 것이다.

## 국가별 맞춤형 전략 세워 진출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사태가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렵겠지만 달리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그렇다. 중동은 앞으로 제조업을 육성할 수밖에 없다. 일자리 창출이 급하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활고를 달래주기 위해서는 생필품, 수입대체 제조업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이 많이 하고 있는 전력, 담수화 등 플랜트 사업도 괜찮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금융부분이다. 최근 스쿠크법, 이슬람채권이 문제인데,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 이슬람금융을 하지 않으면 중동에서 사업하기가 어려워진다. 이 자금이 이슬람 테러자금으로 흘러간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에 불과하다.

시스템 구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중동은 넓은 사막 땅에 신도시를 많이 건설한다. 도시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전산, 통신 등 시스템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런 분야의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대중동진출전략'을 이야기했다. 중동을 하나로 보고 전략을 세우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마다 다양성이 커지면서 이제는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세워야 한다. 섬세한 외교와 맞춤형 전략을 짜지 않으면 어려워질 것이다.

한 나라 안에서도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한 사람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로 가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 기업들도 그에 맞는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가격 담합이나 뒷거래를 해서 성공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북한 붕괴에 대비한 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북한은 중국으로 간다. 북한과 중국은 혈맹이다. 한민족이니까 한국과 통일한다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다. 결국 북한체제가 붕괴됐을 때 우리가 그들을 설득하고 우리 품으로 안을 수 있는 것은 경제적 지원밖에 없다. 이를 위한 자원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재**





서울은 1392년에 '디자인'된 600년의 숨결이 살아 있는 지혜와 역사의 도시이다. 또한 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희망과 미래의 도시이기도 하다. 현재 서울의 인구는 1046만 명으로 처음 인구통계를 냈던 62년 전보다 10배 늘었다. 그러나 면적은 남한의 0.61%에 불과하다. 이는 뉴욕의 1/2, 동경의 1/3 수준으로, 인도 뭄바이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이다.

서울에서는 하루 247명이 출생하고, 106명이 사망하고, 189쌍이 혼인을 한다. 매일 자동차가 15대씩 늘어나고 29동의 건물이 지어진다. 연간 예산 22조 원을 사용하고, 약 5만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서울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금융, 문화, 행정의 중심지역이다. 국제경쟁력도 높아져서 도시경쟁력 세계 9위를 자랑하고 있다.

### 제1686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 뽀뽀(FUN FUN)한 서울, 서울을 부탁해!

#### 여성이 행복한 도시 - 여행(女幸) 프로젝트

내가 서울시와 인연을 맺은 것은 3년 전이다. 오세훈 시장께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나를 스카우트하셨다. 임명장을 받을 때 처음 오 시장을 만났는데, 내게 '여행(女幸) 프로젝트를 살려달라고 부탁했다. 여행은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의미한다.

여행 프로젝트의 시작은 오 시장과 여직원들의 간담회를 계기로 시작됐다. 한 여직원이 '시청에 출근할 때 하이힐을 신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하이힐을 신지 않는 남자 시장으로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나중에야 서울시 보도블록의 틈이 너무 넓어서 하이힐이 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오 시장은 도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남성의 시각만 고집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 때부터 '여성의 시각'에서 도시정책·행정을 다시 '디자인'하기 시작했다. 서울시에 약 150개의 과(課)과 있는데, 여성의 입장에서 정책을

세우자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주택국은 여성이 쓰레기를 버리기 좋은 구조로 주택이 건축되도록 유도했고, 도시교통본부는 여성에게 안전한 주차장을 만드는 정책을 펼쳤다.

여성의 관점에서 배려하기 시작하자 여성 친화적인 도시 시설이나 공간이 생겨났다. 단적인 예가 화장실이다. 화장실은 항상 '신사용'보다 '숙녀용' 줄이 더 길다. 남자보다 화장실 사용시간이 많음에도 여성용 변기는 적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장실 변기 수의 남녀 비율을 똑같이 만들었다. 주차장도 조도를 높이고 폭을 넓히는 등 안전성을 추가했다. 보도블록 틈을 2mm 이하로 줄이고 유모차 이동을 방해하던 장애물도 없었다.

공원에서도 유모차를 빌릴 수 있도록 했고, 여성을 위한 비상전화도 설치했다. 버스과 지하철의 손잡이 높이도 친편일률적인 남자 성인 기준에서 여성, 어린이, 노약자의 키 높이에 맞게 바꾸었다. 여성들이 심야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여성 콜택시도 만들었다. 여성들이 회원으로 가입하면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 차를 타고 내렸는지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육아 문제로 사회활동이 단절된 주부들의 취업과 창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 이른바 장롱 먼허를 되살려 주는 '엄마가 신났다' 프로젝트도 시작했다. 이런 정책들이 세계 대도시 네트워크 여성포럼에 소개됐고, 전 세계에 모범사례가 되어 UN 공공행정 대상을 받기에 이르렀다.

### 시민을 생각하는 세심한 배려가 시정철학

여성가족정책관이 된지 2년 후 오 시장으로부터 정무부시장을 맡아달라는 권유를 받았다. 하지만 처음에는 거절했다. 정무부시장은 시의회, 정당, 국회, 정치 영역과 언론, NGO와 홍보영역을 맡는다. 대외적으로 시장이 가지 못하는 행사에 참석해 시장대행을 하기도 한다. 아시다시피 현재 서울시의회의 3/4, 25개 구 중 21개 구청장이 야당이고 교육감도 진보 세력이다. 그야말로 '사면야가(四面野歌)'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것 같았고, 역량을 발휘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거절한 것이다.

오 시장은 여성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여성의 리더십으로 여행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듯이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고 시민을 배려하는 정책을 시정에 반영하는 부시장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는 하나의 철학이다. '여성만 행복한 도시'가 아니라 '여성도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성의 눈, 여성의 관점이라는 것은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모든 사람이 같이 행복해지자는 시정 철학의 상징적 표현이다.

여성친화도시 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이든 모든 시민을 행복하게 하려면 많은 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 필요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여성이 행복한 도시'는 하나의 철학이다.  
'여성만 행복한 도시'가 아니라  
'여성도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성의 눈, 여성의 관점이라는 것은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모든 사람이 같이 행복해지자는  
시정 철학의 상징적 표현이다.*

생각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 세심한 배려에 전문가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여행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모든 정책을 펼 때 이러한 기본을 잊지 말아야 시민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를 내걸고 2007년 출범한 다산콜센터는 그런 국민의 산물이다. 다산콜센터에는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다. 아이가 아픈데 약국이 문을 닫았다, 막차를 놓쳤다, 신호등이 고장났다... 누구나 이런 상황을 한번쯤은 겪었을 텐데 이제는 곧바로 국번 없이 120만 누르면 된다.

그 뿐만이 아니다. 점심에 열큰한 매운탕이 먹고 싶은데, 직장 근처에 열큰한 매운탕 잘하는 식당이 있는지 물어보면 그것도 가르쳐 준다. 오늘 날씨가 어떨지, 외투를 입고 나가도 될지 물어봐도 성실하게 답해 준다. 다산콜센터는 외국어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을 위한 수화가 가능한 영상서비스와 문자서비스도 지원된다.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다산콜센터는 출범 4년 만에 인지도 80%를 기록했다.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이 알고 있다는 얘기이다. 시민 만족도는 95%나 된다. 실제로 다산콜센터에는 애인과 다툼 이야기도 있고, 어르신들의 눈물겨운 하소연도 있다. 시민들의 희로애락이 전화선을 통해

들려온다. 이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국내 기업은 물론 23개 국가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 사람이 중심이 되는 FUN한 디자인 도시, 서울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한 학자는 '하루 중에 즐겁다고 느끼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행복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맞는 말이다. 그럼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2002년 월드컵 거리 응원 때처럼 세상이 뒤집힐 만큼 특별한 사건이나 너무 먼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내 주변의 사소한 것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진짜 행복한 삶이 된다.

그런 점에서 서울 공기의 질을 통해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전에는 만나절만 입어도 시키뎀턴 와이셔츠가 이제는 이틀 동안 입어도 괜찮다. 그만큼 공기가 맑아졌다. 서울 거리도 아직 고칠 부분이 많지만 과거에 비해 많이 깨끗해졌다.

인구 1천만 대도시에서 공기 질을 바꾸겠다는 것은 무모한 발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민의 평균 수명을 3년은 늘리겠다는 과감한 모험을 시작했다. 우선 서울 시내버스의 90%를 친환경 CNG버스로 바꿨다. 새벽에는 구청별로 거리에 물청소를 실시했다. 앞으로는 '서울형 그린

카'라고 불리는 전기차 보급률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덕분에 서울 시내에도 노천카페가 많이 늘어났고, 밤하늘에 별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깨끗해진 것은 공기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비리와 부패로 구속된 공무원들이 많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시 청렴도가 전국 16개 지자체 중에서 꼴찌 수준인 15위였다. 그랬던 청렴도가 3년 전과 작년엔 1위를 기록했다.

오세훈 시장은 문화와 디자인에 역점을 두고 있다. 문화와 디자인은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서울시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FUN한 디자인'이다. '시가 흐르는 서울', '천원의 행복', '하이서울 페스티벌' 등이 그 일환으로 시민들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많이 기획하고 있다.

서울시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디자인도시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특히 한강에 주목하고 있다. 한강변의 87%를 차지했던 콘크리트를 걷어내자 녹지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현재까지 반포, 난지, 여의도, 독섬 등 4개 특화지구가 완성되었다. 용적을 완화할 조건으로 한강을 사유화하고 있던 강변의 병풍 아파트 일부를 전체 시민을 위한 공원과 녹지로 만들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한강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예





전에 비해 48%나 늘어났다. 물에 뜨는 '플로팅 아일랜드'에서는 공연과 국제회의, 심지어 결혼식까지 가능하다. 서울 예술 섬까지 완성되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한강변에 깔려있는 자전거도로는 우리나라 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낄 수 있는 길이다. 한강뿐만 아니라 지천까지 연결되어 있고, 자전거 전용 공원까지 조성되어 있다. 서울 한복판에서 가족들과 캠핑도 가능하다. 옛날에는 캠핑을 하려면 멀리 떠나야 했지만, 지금은 집에서 30분 거리면 휴가를 즐기는 기분을 맞볼 수 있는 캠핑장이 5곳이나 있다.

제주도에 올레길이 있는 것처럼 서울에도 걸어서 즐길 수 있는 길이 있다. 북한산 둘레길과 서울성곽 길이다. 서울 성곽을 둘러싸면서 시작해 북한산 둘레까지 현재 4.1km 구간이 완비되었다. 이 길은 4대 지천, 한강 르네상스와 연결되어서 전체적으로 도시 내에 그린벨트를 조성하고 있다. 이제 서울은 콘크리트 도시가 아니라 문화와 디자인이 살아 있으면서 공기가 깨끗한 그런 서울, 조금만 나가면 운동을 할 수 있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도시로 변하고 있다.

### 소통하는 정책으로 행복한 도시 건설

정부부시장을 하면 갈등의 현장에 많이 있게 된다. 갈등해결의 종착지로써 뭔가 안 되는 일이 생기면 모두가 나를 찾아온다. 그런 일을 겪으면서 자칫 중심을 잃으면 심신이 피폐해지기 쉽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기본'이다.

기본은 다른 게 아니다.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 빠른 길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갈등을 해결하기 쉬워진다. 여성 행복 프로젝트에 여성의 관점을 반영하듯이 장애인 행복 프로젝트 등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 그들이 가장 필요한

욕구를 찾아내서 가장 빠르게 정책에 적용하는 것이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여야가 그것을 위한 창의성 발휘의 그라운드에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

성공하는 조직은 비전, 실행, 소통에서 탁월하다. 이 3가지 중에서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비전과 실행일 것이다. 그나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소통이다. 소통은 그 누구도 대행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시민이 알지 못하는 정책, 시민과 소통하지 못하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다. 시민과 소통만 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세계의 가볼 만한 도시'에서 서울이 3위에 선정되었다. 영국의 디자인 종합전문지 〈월페이퍼〉는 서울을 '디자인 Best5'로 선정하기도 했다. 중국의 사회과학원은 서울의 도시경쟁력이 세계 9위라고 했다. 여러분들이 서울에 살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서울은 그만큼 깨끗해지고, 청렴해지고 있다.

서울은 여전히 활기차고 아름답고, 여전히 역동적인 도시이다. 서울시의 다음 목표는 2010년 도시경쟁력 9위에서 민선 5기가 마무리되는 2014년에는 세계 5위가 되는 것이다. 세계 Top5가 되는 데에는 핵심 키워드가 있다. 도시경쟁력을 높일 때는 도시 산업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행복을 멀리서 찾지 않고 사소한 배려로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방법도 있다. 행복을 너무 거창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면 행복해질 수 없다.

정책도 어제보다 오늘의 정책이 조금 더 나아져서 시민들이 편해지면 그게 행복한 정책이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행복을 찾는 정책, 시민을 배려하고 즐겁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정책이 글로벌 Top5를 만들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들이 서울시를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것이다. **김재**

# e-비즈니스시대, '글로벌 온라인 비즈니스와 新 온라인 상인 한류를 위한 특별세미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과 인터넷 생태계 분석·전망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기업들이 해외홍보 및 판로개척,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온라인 비즈니스와 新 온라인 상인 한류를 위한 특별세미나'가 열렸다.

본원은 지난 4월 15일(금)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오키드룸에서 본원의 법인회원사인 이베이 옥션·G마켓과 공동주최로 회원사 임직원을 비롯한 중소기업 CEO, IT·e-비즈니스 관계자 등 250여 명을 초청해 e-비즈니스 3.0 시대의 글로벌 온라인 비즈니스와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축사하는 장만기 회장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황철중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 인터넷 혁신에 앞선 한국,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커질 것

해외 유명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신상품을 발굴하는 등 최근 바이어들에게 온라인 비즈니스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자상거래를 통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중소기업 생존 전략 마련’을 주제로 연설에 나선 토드 코헨(Tod Cohen) 이베이 부회장은 이베이를 통해 매 1초마다 2천 달러, 하루 4백만 개 이상의 상품들이 거래되고 있다면서 유통업체가 아닌 이베이가 미국 내에서 8번째로 큰 유통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 중소기업인들이 이베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활용해 글로벌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며, “모든 중소기업, 중소기업인들이 글로벌시장 진출의 통로로 이베이를 적극 활용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10년 600억 달러 이상의 거래 물량 중 20%가 국경 간 거래였으며, 이런 추세는 올해 3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한국시장의 위상에 대해 그는 “이베이시장 중 한국은 1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터넷 관련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와 혁신에 앞서 있는 한국시장은 앞으로 더욱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그는 한국의 중소기업, 중소기업인들이 쌓아온 노하우가 세계시장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향후 2년 안에 국내 중소기업, 중소기업인들의 1인당 매출액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통해 한국시장 전체의 발전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2010년 600억 달러 거래 중 25억 달러가 모바일커머스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시장이 글로벌화 될수록 모바일쇼핑, 온라인 쇼핑 등 새로운 형태의 e커머스 시장이 발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혁명과 e-비즈니스의 전략적 방향

황철중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장은 ‘미래 네트워크사회를 향한 새로운 ICT혁명 - Smart, Cloud, Social, Smart Work’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오늘날 새로운 인터넷 기술의 구조와 특징이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디지털 경제 또는 인터넷 경제시대를 만들어냈다”고 전제하고, “2010년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또는 아이패드에 의해 주도되는 모바일시대가 또 한 번의 새로운 혁명적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국장은 스마트폰을 통한 Social Network Service(SNS)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의 인터넷 활동을 소셜 플랫폼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로 만들고 있다고 밝히고, 이런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기업, 정부는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개인과 기업, 정부가 변화를 적극 수용하면서 상상력과 창의성을 살려 IT 강국의 면모를 되살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e-business 2.5, 새로운 인터넷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 전환’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발표에 나섰다. 신 교수는 스마트(smart), 소셜(social), 터치(touch), 착한(cause)을 키워드로 개인화와 소셜의 만남, 온라인 쇼핑 경험의 증진, 모바일 환경을 키워드로 하는 새로운 인터넷 생태계가 부상하고 있다며, e-비즈니스 키스톤의 변화에 따른 e-비즈니스 2.5 전략의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특별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이베이 옥션·G마켓은 국경 없는 온라인시장의 장점을 이용해 2009년부터 국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인들의 해외진출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베이는 전 세계 39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2억여 명의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베이**

## 온 국민 평생교육 지식파트너

# 지식의 생산 · 교류 · 나눔으로 교육복지 실현

“방송대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대학이지만 결코 쉽게 졸업할 수 있는 대학은 아닙니다. 입학은 쉬워도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졸업시키는 것이 대학의 바람직한 역할이라면, 바로 방송대가 그 모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방송대는 쉽게 입학하고 쉽게 졸업한다는 사회 일부의 편견에 대해 조남철 총장이 거침없이 쏟아낸 반론이다. 실제 매년 졸업생 비율이 20% 내외일 정도로 학생평가와 학사관리가 엄격하다. 평생학습이 시대적 흐름인 상황에서 방송대가 지속적으로 자기계발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평생교육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조 총장의 주장이다. 실제 올해 방송대 신입생 중 60%가 다른 대학을 졸업한 편입생이다. 매년 4천여 명의 졸업생이 다른 과로 재입학한다는 점도 흥미롭다.

500,000. 방송대를 졸업한 학생 수다. 방송대의 경쟁력은 바로 사람에 있다. 자기계발을 위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방송대를 선택했고, 50만 졸업생에 이어 18만 명의 재학생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와 함께 우리사회의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교육복지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조 총장 임기 내의 목표다. 지식을 생산하고 교류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그 지식을 나누는 대학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개교 50주년을 맞는 2022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조남철 총장을 만나 열린대학, 평생학습의 가치를 선도해 온 방송대의 도전과 개혁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평생교육 지식파트너로서의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평소 친근하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자세히는 모르는 곳이 방송대인 것 같습니다. 먼저 방송대 소개부터 해주시죠.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972년 3월 9일 개교해 올해 개교 39주년을 맞았습니다. 국내 유일의 국립 원격대학으로 개교 이래 50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방송대는 고등교육,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국내 독보적인 대학이죠.

4개 단과대학 22개 학과에 18만 명의 재학생이 있고, 대학원은 9개 학과에 1천여 명이 재학 중입니다. 올해 일본언어문화학과, 실용중국어학과, 농업생명과학과, 법학과, 청소년교육학과, 환경보건시스템학과, 영상문화콘텐츠학과, 바이오정보학과 등 8개 학과를 신설해 2012년도부터 신입생 모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전공별로 석사 과정을 잘 운영해서 박사 과정까지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반대학이 교수와 학생들의 면대면 강의를 중심으로 한다면 방송대는 TV, 멀티미디어, 웹, 모바일 등 다양한 교육매체를 통해 강의를 합니다. 체계적이며 질적으로 우수한 교수설계 및 제작, 평가과정을 통해서 우수한 콘텐츠를 만들어낸과 동시에 철저한 학생평가와 학사관



리를 통해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대학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대는 등록금이 국내 대학 중 가장 저렴한데요. 인문계열 35만 원, 자연계열 37만 원, 대학원 125만 원 내외로 일반대학의 10분의 1 수준으로 고등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송대는 교육복지에 앞장서는 대학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복지의 첫걸음이라면, 방송대는 누구에게나 열린 대학이라는 개교 당시의 목표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 조남철 총장은...

1952년 생으로 연세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국문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강릉대를 거쳐 1987년부터 방송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2010년 10월 1일 제6대 총장에 취임했다. 방송대 교수 출신 총장으로는 3번째이며, 2014년 9월까지 대학발전을 이끌 예정이다. 한국문학연구학회 회장, 중국 연변대 초빙교수, 중국 중앙민족대 객좌교수, 재외동포신문 편집위원장, (사)재외동포포럼 상임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동북아평화연대 공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다.

사진 · 오경근 원장

노력하는 사람들의 대학이 바로 방송대죠. 이처럼 방송대는 최근 평생 교육을 지향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지식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10 학위수여식

학위수여식에서 조남철 총장

우리 대학은 '대학 학위를 위한 대학'에서 '자기계발을 위해 찾는 대학'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결과 신입생 40%, 편입생 60%로 다른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편입학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편입생 4명 중 1명은 대학 졸업자입니다. 연령대도 검정고시를 통과한 15세 학생부터 80세 최고령자까지 다양합니다. 20~30대가 70%로 대부분이지만 40대 이상이 30%, 그 중 50대 이상이 10%에 달할 정도로 만학도들이 많습니다. 새터민,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에서 입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 국회의원, 의사 등 다양한 직업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회사원 30%, 공무원 7%, 교원 7% 등 재학생의 80%가 직업을 가진 학생들이고, 전업주부 17%, 전업학생이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장님은 1987년부터 시작해 방송대에서만 2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보다 방송대에 대한 애착이 강하실텐데요. 총장님이 생각하시는 방송대만의 강점은 어떤 겁니까.**

모든 교육이 공공성을 갖고 있겠지만 국립대의 경우 공공성이 더욱 강합니다. 특히 방송대의 경우 다른 어느 대학보다 공공성이 강한 대학이죠.

이러한 방송대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다른 대학이 따라오지 못할 교육적 인프라입니다. 39년의 원격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학 유일의 교육방송 채널인 방송대학TV(OUN)를 보유하고 있어 독자적인 강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방송대 채널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와 더불어 전국 13개 시도에 위치한 지역 대학과 3개 학습센터, 33개 시군학습관 또한 전국을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방송대만의 강력한 경쟁력이죠.

전국에 형성되어 있는 인적 네트워크도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39년

간 배출한 50만 명의 졸업생과 18만 명의 재학생이 다양한 연령과 직업 속에서 서로 동기동창이 되어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방송대는 철저한 학생평가와 학사관리로 유명합니다. 매년 졸업생 비율이 20% 내외로 낮은 편입니다.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대학에 비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해야 하기 때문에 탈락자가 많을 수도 있지만, 학습량이 적거나 학사관리에 엄격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철저하게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 계각계층에서 활약하는 방송대 출신 인적 네트워크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 대학 졸업생들 중에는 기업인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송대 출신이라는 사실에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2010년 9월 기준으로 중앙 행정부처 고위공무원 1500명 중 방송대 출신이 5.5%를 차지해 5위를 기록했고,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출신대학에서는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국가인재DB의 출신대학별 현황자료를 보면 방송대 출신이 4위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제18대 국회의원 중에서 방송대를 졸업했거나 재학 중인 의원은 23명이나 됩니다.



방송대 인적네트워크로 표현한 KNOU

**학교에 오래 계셨던 만큼 기억에 남는 학생 등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방송대에 오기 전 일반대학에서 6년간 교수로 재직했는데요. 그 때 만났던 학생들로부터 받았던 감동과 방송대 학생들로부터 받은 감동은 참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수가 학생들에게 감동 받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대학의 경우 학생들이 교수를 감동시키는 일이 종종 있어요.

저도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이 많았는데, 어떤 학생은 나중에 알고 보니 제 고등학교 동창생의 어머니였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10년 만에 졸업하셨는데, 졸업 때까지 당신이 누구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숨기셨어요. 말씀하고 싶으셨을 텐데 행여 누가 될까봐 그러신 겁니다. 연세가 70이 넘어 졸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최고령 졸업생은 83세로 기억되는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배우게 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최근 사이버대학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대와 성격이 비슷해 보이면서도 분명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라고 해서 면대 면 출석수업을 통해 원격교육을 보완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사이버대학과는 다른 점입니다. 또한 방송대 내부교수 뿐만 아니라 학계의 유명 교수진이 집필한 교재를 사용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업방법을 변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업이 가능하도록 개선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만큼은 오프라인 시험을 고수한다는 것과 오랜 원격교육의 역사 때문에 튜터링, 멘토링, 워크북 등을 지원하는 선진국형 학습자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차별화 된 부분입니다.

금년 8월부터는 교육서비스 측면에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통합학생서비스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도 서비스센터가 있었지만 기능적으로 부족함이 많았고, 이를 콜센터 수준으로 확장해 학생들이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5년 전 KT와 제휴를 통해 휴대폰을 통한 모바일러닝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는 LG U+와 MOU를 체결해 모바일 기반 교육 플랫폼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재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들이 졸업 후 재입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매년 4천여 명에 가까운 졸업생이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는 등 평생학습을 추구하는 '방송대 매니아'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IT발전에 따른 원격교육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대 시스템 현황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원격영상 강의장면

방송대 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는 100여 명의 교육콘텐츠 전담 제작진들이 케이블, 위성, IPTV 등의 방송강의, 웹 강의, 멀티미디어 강의 등을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기반의 HD 방송제



웹강의제 작성장면



TV강의 제작장면



TV강의 제작장면

작성시스템인 차세대서비스플랫폼(NGSP, Next Generation Service Platform)을 구축하고 모든 교육콘텐츠를 HD급 화질의 디지털 파일로 제작해 TV, 인터넷, 모바일 등 다매체 환경에서 서비스하고 있죠. 이 외에도 대학 출판부를 통해 700여 종의 대학교재를 발행하고 있고, 교양도서 브랜드인 '지식의 날개', 대학교재 및 학술도서 브랜드 '에피스테메', 교양문고인 '아로리총서' 등을 발행하면서 원격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방송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아직 남아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가령, '졸업이 쉽다'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대학'이라는 인식이 그 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사회적 편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교 당시에는 경제적 이유 등으로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했고, 등



조남철 총장과 장만기 회장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지난해 6대 총장에 취임한 조남철 총장

특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생긴 편견일 수 있죠. 우리 스스로도 그 점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방송대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대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쉽게 졸업할 수 있는 대학은 아닙니다. 졸업이 어렵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바로 이것이 바람직한 대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입학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엄격한 학사관리를 통해서 그야말로 우수한 학생들을 졸업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대학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방송대가 바로 그런 모습을 지향하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 비해서 위상이 낮은 것은 아무래도 학연, 학력 위주의 사회풍조로 인한 결과일 겁니다. 대학을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입학하는 대학으로 인식되던 부분도 현재는 많은 대학 졸업자들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우리 대학에 입학하고 있습니다. 결국 '평생교육=방송통신대'라는 브랜드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대학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대국민 접촉점을 찾아 나갈 예정입니다.

**방송대는 국립대학입니다. 국고지원에 상당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정부에 대한 바람이 있으시다면 어떤 겁니까.**

연간 1,470억 원의 예산 규모 중 국고 26%, 기성회회계 74%로 타 국립대학에 비해 국고지원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방송대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성과에 비해서 정부의 관심이 부족하다는 건 아쉬운 대목이죠. 국고의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평생학습사회를 이끄는 데 방송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방송대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총장님 임기 중 가장 큰 교육목표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우리 대학은 다른 어떤 대학보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역할이 큰 대학입니다. 지난 39년 동안 국립 4년제 원격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다하면서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

가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대학은 방송대가 유일하죠.

다른 측면에서는 경제적, 지리적, 정치적 이유로 교육으로부터 소외 받는 사람이 없도록 이들을 포용하는 교육복지 대학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된 다문화가정 및 이주노동자를 위해 이주민은 물론 이주민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모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미래 통일한국을 함께 살아가야 할 탈북 새터민 교육과, 국내외 해외이주민은 물론 700만 해외 재외동포들에게 민족 정체성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방송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이죠. 이를 통해 한민족 교육의 메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노령화시대를 대비해 인생 2모작, 3모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목표 중 하나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고령자 및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온나눔교육'이 바로 노령화시대를 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방송대는 대학 본연의 업으로써 지식을 생산하고, 그 지식을 다른 지식과 교류하는 한편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식을 나누어야 합니다. '지식의 생산과 교류, 나눔의 중심대학'이 바로 방송대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 7월 완공될 대학본부 조감도

**지식 나눔의 중심대학을 말씀하셨는데, 해외에까지도 지식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국경과 빈부의 차이를 넘어서서 교육 자료를 무상으로 자유롭게 개방하는 OER(Open Educational Resource) 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MOU를 체결하고 OCW(Open Course Ware) 공동 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송대학TV는 물론 KOCW 사이트(www.kocw.net)로 확대할 예정이죠.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지원도 검토 중입니다. 한국형 교육모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증대와 정부의 '한국형 교육모델 전파 사업'에 대한 실천 여부, 개발도상국 빈곤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국내초청 연수 등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지원, 원격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의 전문인력 및 해외봉사단 파견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하면서 박두진 선생의 마지막 제자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시나 작품이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해산(海山) 박두진 선생님의 조교를 했습니다. 시인들이 생활과 시가 일치하기 쉽지 않는데, 선생님은 시를 지키면서 정말 시인답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제자였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영광입니다.

선생님의 작품 중에 '묘지송(墓地頌)'이라는 시를 가장 좋아합니다. 과거 어려웠던 시절 넘겨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육의 장이 되었던 방송대의 미래상처럼 영원한 생명에의 동경을 노래한 이 시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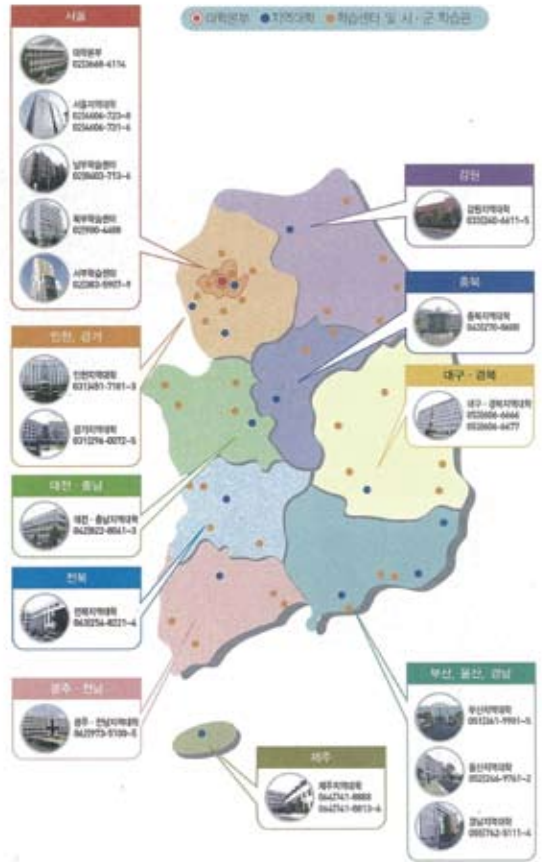
'북방(北邙) 금잔디 기름진데 / 동그란 무덤들 외롭지 않으이 / 무덤 속 어둠에 하이얀 촉루가 빛나리 / 향기로운 주검의 내도 풍기리 / 살아서 썩던 주검 죽었으며 이내 안 서럽고 / 언제 무덤 속 화안히 비취 줄 그런 태양만이 그리우리 / 금잔디 사이 할미꽃도 피었고 / 뻐이 뻐이 배, 뱃종! 뱃종! 뱃새들도 우는데 / 봄별 포근한 무덤에 주검들이 누웠네'

**인간개발연구원이 올해로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인간개발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은 지난 36년간 매주 목요일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공부하는 CEO들의 학습문화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기업, 전국 지자체 공무원 및 시민사회에 평생교육이라는 흐름이 형성된 것도 어찌 보면 연구원의 힘 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위해서 평생교육이라는 테마를 놓지 않는다는 점에서 방송대와 연구원은 공통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이 상호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간다면 우리 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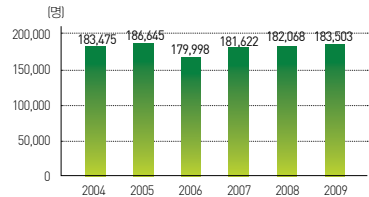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김재배**

○○○○ 캠퍼스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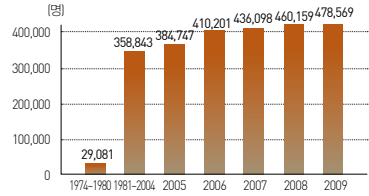


○○○○ 학생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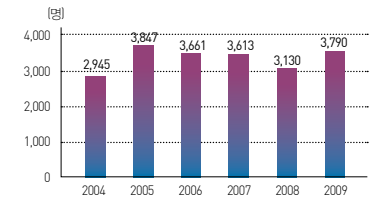
● 재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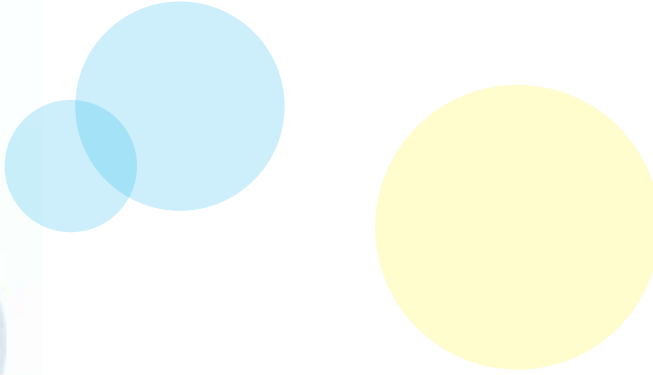


● 졸업생 누계현황



● 졸업하고 다시 입학하는 방송대인





# 개인신용등급에 대한 오해와 진실

소득이 많거나 사회고위층이면 신용등급이 좋을까? 혹은 대출이 많으면 무조건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될까? 답은 둘 다 '그렇지 않다'이다. 소득이 많거나 사회고위층이라 해도 대출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경력이 있다면 신용등급은 높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소득은 그다지 많지 않더라도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연체 없이 잘 사용하고 있다면 신용등급은 높게 나타난다.

## 부채상환능력에 따라 다른 신용등급

평소에는 신용등급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거나 신용카드발급을 신청할 때면 신용도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다. 개인별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지고 대출이자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신용등급이란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의 '부채상환능력'을 등급으로 표시한 것이다. 신용등급이 좋다면 은행에서 적정한 대출한도와 함께 대략 7% 내외(현재 시중금리 감안)의 금리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등급이 낮아서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대출금액도 줄어들고 대출이자율도 최고 39%까지 올라간다. 신용등급이 좋은 경우와 비교해서 최고 5배 이상의 이자부담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개인신용등급은 1등급부터 10등급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1~2등급

이면 최우량, 3~4등급은 우량, 5~6등급이면 보통, 7~8등급은 주의, 9~10등급은 불량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5~6등급은 돼야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다.

하지만 이는 NICE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신용평가정보 등과 같은 민간 신용조회회사의 등급별 정의를 의미하고, 은행이나 기타 금융회사들은 자체적인 신용등급기준을 사용한다. 따라서 금융회사별로 적용하는 신용등급은 신용조회회사의 자료와 비슷할 수도 있고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있으므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가령 통신비나 신용카드는 5만 원 이상 5일 이상 연체 시 연체기록이 등록된다. 단, 신용카드의 경우 연체일로부터 30일



단기간에 현금서비스를 여러 번 받거나  
저축은행,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카드론 이용은  
신용도 하락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내에 상환하면 신용도는 바로 회복이 되지만 30일이 경과하게 되면  
기간에 따라 신용도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세금(국세, 지방세)의 경우엔 500만 원 이상 또는 1년에 3회 이상 총  
500만 원 이상 체납 시 기록이 등재된다. 반면 대출의 경우에는 단돈  
10원이라도 연월 이상 연체 시에는 연체기록이 남게 되며 1,000만 원  
이상 연체 시에는 1년 이상 기록이 남고, 연체기간과 금액 등에 따라 최  
장 5년까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한 번 떨어진 신용 회복 어려워, 평소 관리해야

많은 사람들이 현금서비스를 사용하면 무조건 신용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신용조회회사별로 현금서비스  
에 대한 내역을 반영하지 않는 곳이 많고 금융회사 역시 반영하지 않는  
곳들도 있기 때문이다. 단, 단기간에 현금서비스를 여러 번 받을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줄어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은행권대출이 아닌 저축은행을 포함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도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카드론을 사용할 경우에는 곧바  
로 신용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은행권을 제외한 제2금융권의 대출조회나 카드사의 신용조회 횟수 등  
이 연간 총 3회를 넘어가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앞서 언급  
한 신용조회회사를 통한 신용등급 조회는 횟수와 상관없이 신용도 하  
락에 영향이 없다.  
반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연체할 경우에는 신용도에 영향을 미  
치지 않으며,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수도요금 등을 연체하더라도 일  
반적으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돈을 받아야 할 채  
권자인 가스공급회사 등이 연체내역을 등록할 경우에는 신용도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평생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신용등급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출이 필요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평소에 자신의 신용도를 관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신용등급은 하락하  
기는 쉽지만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용도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은 금융회사별 또는 신용  
조회회사별로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거래하고자 하는 금  
융회사를 통해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  
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김재민**



**● 송승용 이사**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싱가포르 금융  
연구원에서 국제금융과 외환과정을 마치고  
대우증권에 거쳐 희망재무설계의 이사로 재  
직 중이다. 현재 MBC TV 경제매거진 M, KBS  
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의 자문위원이  
며, KBS 2TV 생방송 오늘에 고정 패널로 출연  
중이다. 저서로는 <금융회사가 당신에게 알려  
주지 않는 진실>, <어른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등이 있다.

# 크리스천 리더,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다

CLA 2기,  
5개월 과정으로  
3월 8일 개강

1. CLA2기가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월 8일 개강했다.
2. 개강예배를 인도한 이동원 목사
3. 개강강연에 나선 이경숙 이사장
4. 함께 기도하고 있는 원우회원들
5. 개강인사를 하고 있는 장만기 본원 회장
6. 개강식 후 1,2기 원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7. 개강인사를 하고 있는 이재천 CBS사장

리더의 모습에 따라 조직은 색깔을 달리한다. 이미 많은 개인과 조직이 이야기하고 있는 섬김 리더십이지만, 롤모델인 예수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크리스천 CEO들이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CLA, Christian Leaders Academy)’ 2기 개강에 참여했다.

3월 8일, 팔래스호텔에서 문을 연 CLA 2기는 조남철 방송통신대 총장,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박삼규 녹색기술연합 이사장, 원혜숙 중부화스너 대표 이사 등 52명의 CEO들이 5개월간 함께 공부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분야 크리스천 리더들의 말씀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자리이다.

본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생활에서의 섬김 리더십 실천과 낮은 데로 임하는 봉사를 삶에서 가까이 실천하는 자세이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뜻 깊은 행사를 서로 소개하고 나누면서 행복감을 몇 배로 맞볼 수 있었다.

CLA 과정은 36년간 매주 초찬강연을 통해 리더들의 지혜를 공유해온 인간개발연구원과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지성 CBS가 크리스천 CEO들을 위한 최고위과정으로 준비했다.



## 낮은 자세로 섬김 리더십 실천하는 크리스천 CEO



개강예배를 맡아주신 이동원 지구총교회 목사는 “시대를 거스르는 주님에 대한 순종과 하늘문을 여는 열쇠인 감사가 우리 리더들에게 가장 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조차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섬김 리더십을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강강연에 나선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숙명여대 총장으로서 섬김 리더십을 실천해 14년 전만 해도 평범한 대학이었던 숙명여대를 디지털대학의 선두주자, 학생들의 고객만족도 1위 대학, 대학행정 혁신의 메카로 이끌어낸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주었다.

숙명여대에서 비전을 품은 이경숙 이사장은 12년 마스터플랜 프로젝트를 세우고, 섬김 리더십의 구체적인 행동전략으로 V-Vision, I-Intelligence, C-Communication, T-Time management, O-Open-mind, R-Responsibility, Y-Yes의 첫 글자를 조합한 VICTORY를 실행에 옮겼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심부름꾼이라고 얘기하는 이 이사장의 겸손함에 교육생들은 큰 감동을 받았다. 숙명여대의 발전은 섬김 리더십으로 자신을 낮추고, 학생 한명 한명까지도 사랑하고, 매일 아침 새벽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이사장의 큰 비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이 일하고 있는 곳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해줬다.



이장로 고려대 교수는 크리스천 리더십을 총 정리하여 예수님의 리더십 모델을 4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사명을 따르는 팔로우십(followership)이 리더십의 기본이다. 예수님은 평생 Follower로 사셨다고 한다. 둘째,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은 관계 차원의 리더십이며 사람을 얻는 능력이다. 셋째, 공동체를 세우는 성령 충만 리더십(Empowering Leadership)은 단체 차원의 리더십이며, 제자들로 공동체 세우기이다. 넷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비전 리더십(Visionary Leadership)은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함으로써 새 일과 새 역사가 이루어짐을 말한다. 이 교수는 경영학 교수이지만 다시 신학을 공부하면서 10여 년간 크리스천 리더십 모델을 만들어왔다. 특히 크리스천 리더 양성을 위해 강연자료를 공개하고 크리스천 리더십을 전파하는데 써달라고 부탁했다.

### 신앙적 삶을 경영에 접목하는 크리스천 리더 양성

정부를 대표하는 크리스천 리더로는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3명이 강연에 나서 “국가경쟁력”, “녹색성장”, “문화경영”에 대한 비전과 가야할 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부라는 조직으로써도 그렇겠지만 인간적인 리더의 고뇌와 열정을 보여주신 것에 더욱 큰 감동을 느꼈다.

참여한 강사 중에서도 박종원 코리안리재보험 사장,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양병무 재능교육 사장, 김광석 참존화장품 회장 등은 CEO로서 크리스천적인 삶을 경영에 접목하고 있는 분들이다. 이들 모두 창의와 혁신, 신시장의 개척, 그리고 조직과 인생에서의 경험을 깊은 감동으로 전해, 일류기업들은 역시 정신이 살아 있는 CEO와 한 몸임을 입증하였다.

이외에도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일치와 소통의 도구를 이야기한 최갑홍 표준협회 회장은 표준을 통해 세계 1위가 나오는 만큼 우리기업이 세계표준을 뛰어넘는 수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교과과정에서 수없는 진화론을 학습한 우리이지만 다시 종교인으로서 '인간창조론의 새로운 해석'에 대해 이용상 한국창조과학회 회장으로부터 강연을 들으면서 크리스천 리더들의 노력이 얼마나 새 일, 새 역사를 만드는데 중요한 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CLA 2기는 7월 12일 수료 때까지 각 분야 리더들의 특강과 함께 찾아가는 서번트 리더십 교실, 국내외 봉사 및 탐방, 회원친선교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KBKIM**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박종원**  
코리안리재보험 사장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장로**  
고려대 교수



**김광석**  
참존화장품 회장

# 소외된 이들을 위한 나눔의 시간

## 소망교도소 방문 & 밥퍼, 다일천사병원 봉사활동

1. 소망교도소 시찰 후 한자리에 모인 회원들
2. 소망교도소에 대해 설명하는 김승규 전 장관
3. CLA 원우들을 환영하는 소망교도소 관계자들
4. 소망교도소에 대한 소개시간
- 5,6. 소망교도소를 방문한 회원들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淸明)인 4월 5일,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CLA) 2기는 ‘찾아가는 서번트 리더십’의 일환으로 소망교도소를 방문했다. 한낮 여유롭게 내리쬐는 햇살과 완연한 봄기운은 출발지에 모인 참가자들의 미소처럼 따뜻했다.

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한 버스에서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시간을 통해 서로의 친목을 다지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약 1시간여를 달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소망교도소에 도착한 일행은 교도소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약간의 긴장감이 맴돌기도 했지만 이내 소망교도소 직원들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환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 재소자 편의 먼저 배려하는 국내 최초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 소개 및 비전에 관한 브리핑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한국 교회가 설립, 국내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는 ‘재범률 3%’를 목표로 지난 2010년 12월 1일 개소했다. 설립 운동부터 개소에 이르기까지 숏한 고비들이 많았지만 전국의 교회와 개인 및 단체의 후원으로 15년 만에 완공될 수 있었다. 소망교도소는 재소자들의 편의를 배려한 시설로 기존의 국영교도소와 차별을 뒀으며, 임대가 아닌 독립된 건물로 운영되는 세계 최초의 비영리 민영교도소이다.

간략한 브리핑 후, 일행은 직접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 내부 시설을 둘러보았다. 재소자들의 직업 재활 및 자격증 훈련이 진행되는 작업실과 실제 재소자들이 생활하는 교도소 수용실이었다. 5인 수용실은 문이 달린 화장실과 벽걸이 TV 등으로 재소자의 편의를 최대한 배려하려는 흔적이 보였다.

특히, 교도소 내 복도의 양 벽면에 전시된 그림들이 눈길을 끌었다. 재소자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전시된 그림들은 모두 기증 및 후원을 받은 것으로 작품 하나하나가 차가운 수감시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듯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재소자들의 편의와 교육을 위해 애쓰는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 재소자 교화 및 인성교육으로 재범률 3% 목표



교도소 내부를 둘러본 일행은 다시 소강당으로 들어와 소망교도소 설립의 주역인 김승규 전 법무부 장관의 강연을 들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소망교도소를 운영하는 ‘아가페재단’(이사장 김삼한 목사) 이사로, 또 아가페 전문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그는 세계 최초의 민영교도소로 출소자 재범률을 4%대로 떨어뜨린 브라질 산 호세 의 ‘휴마이타 교도소’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이를 바



3



4



5



6



4월21일 청량리 밥퍼 봉사활동에 나선 CLA 원우회원들

탕으로 소망교도소는 재소자의 교화를 위해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시켜 출소자의 재범률을 3%대로 줄여나가 범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비영리 민영교도소로 모든 운영비가 100% 후원과 기증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강연을 마쳤다.

김승규 전 장관의 짧지만 인상 깊은 강연을 들은 일행은 교도소 내 직원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했다. 권중원 소장은 “식단은 재소자들과 동일하게 구성되고 있으며, 맛도 훌륭하지만 전문 영양사가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고려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재소자들과 함께 한 식사는 일행들에게 다른 어떤 시간보다 의미 있었다.

비록 몸은 다시 서울로 향했지만 일행 모두의 마음은 소망교도소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면서, 더 많은 이들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한편 CLA는 향후 소망교도소 멘토프로그램 참여와 기부,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

### 청량리 밥퍼 & 다일천사병원 봉사로 나눔실천

‘참된 경건을 환란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약 1:27)’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도심 한복판 빈민촌에서 시작된 밥퍼나눔운동본부는, 다일공동체가 화해와 일치를 위하여 나눔과 섬김의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산하의 무료급식소이다.

지난 4월 16일 ‘찾아가는 서번트 리더십’ 다일천사병원 봉사활동에 이어 21일에 실시한 두 번째 봉사활동은 청량리에 위치한 밥퍼나눔운동본부에서 이루어졌다. CLA 8명의 원우들은 매회 6~7백 명의 식사를 담당하느라 온몸으로 고생하는 밥퍼나눔운동본부 직원들과 함께 직접 음식을 만들고 배식 및 설거지를 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모인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급식소 청소를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을 마친 일행은 시간의 제약으로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했지만 5월 6일 세 번째 봉사활동을 기억하며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김제민**

## [ 회원 소식 ]

■ **대한삼보연맹(회장 문종금)**은 지난 3월 3일, 특허청으로부터 심벌마크와 마스코트에 대한 최종 업무표장 특허 등록결정을 받았다.



■ **김광득 건설교통저널 상임고문**은 지난 3월 4일, '81 국방대학원 동기회' 회장직을 2년간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원들의 성원 속에 회장직을 퇴임하였다.



■ **이승한 홀플러스그룹 회장**이 지난 3월 16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회 한국윤리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최고윤리경영인으로 선정되었다. 또 투명경영대상에 **삼익THK(대표이사 부회장 심갑보)**가 선정되었다. 윤리경영대상은 한국경제신문과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후원하는 시상식으로 올해 9회째를 맞았다.

■ **이인상 한국산업인력공단 노조지부장**이 노동부 산하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노동부유관기관노조 2대 위원장에 당선되었다.



■ **서울특별시의회사회(회장 나현)**는 북경의사협회(회장 鄧開叔)와 상호 호혜평등 및 상호이익을 원칙으로 양측의 우의증진과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MOU 체결식을 북경에서 가졌다.



■ **윤희진 대비육종 회장**은 축산신문을 통해 2010년 11월 2일부터 2011년 2월 8일까지 26회에 걸쳐 연재된 본인의 경영이야기를 <나의 꿈, 나의 열정 브라보 양돈인생>이라는 작은 책으로 펴냈다. 이 책에는 양심(良心), 열심(熱心), 협심(協心)이라는 3심3心の 경영철학과 함께 일생을 담아 일궈온 경영 에피소드가 들어있다. 한편, 윤회장은 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숨진 공무원 9명의 가족에게 대한양돈협회를 통해 1억 원을 전달하였다. 윤 회장은 서울대 축산전공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위해 수천만 원을 기부하고, 3차례에 걸쳐 대



북한 종돈 지원사업도 펼쳤다. 한편 캄보디아에서 신부가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훈련원에 돈을 지은 다음 새끼돼지 100마리를 보내고 양돈을 공부하는 베트남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했다.

■ **재능교육(대표이사 양병무)**은 인천시 다문화가정 아동학습 지원 및 멘토링 서비스 제공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재능교육은 앞으로 다문화가정 아동들을 상대로 멘토링 교사 서비스뿐만 아니라 재능교사가 2개 과목에 대한 방문학습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문화어린이도서관 엄마나라체험과 재능TV견학 등의 체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한국산업인력공단(기획운영이사 이윤호)**은 올해 중소기업 현장훈련 지원사업 등에 8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까지 체계적 현장훈련을 시범 실시 후 오는 2012년도부터 본 사업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며, 지원기간은 성과평가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하게 된다.



■ **정이안 정이안한의원 원장**이 잡지 <미즈 내일>의 표지모델이 되었다. 정 원장은 한의원을 개원한지 16년째로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질병을 특화해서 치료하고 있다.



■ **대한노인회(회장 이십)**은 올해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 지원으로 전국 13개 지역(수도권 특화사업 지역 포함)에서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의 일환으로 경로당을 기반으로 한 700개 자원봉사 클럽 조직 사업을 실시한다. 13개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경기(남부/북부),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남, 수도권 특화사업단 등이다.



■ **롯데호텔(대표이사 좌상봉)**은 지난 2일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 본관 1층 로비에 '롯데호텔갤러리 (Lotte Hotel Gallery)'를 개관하였다. 특히 이번 개관은 '반도화랑'이 있던 자리에 갤러리가 들어서는 것으로 반도화랑의 지리적·역사적 정신을 이어가게 되었다.



■ **김상희 (주)웰코스 회장**은 월간 순수종합지 <순수문학> 2011년 4월호(통권209호) 수필부문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수필가로 등단하였다.



■ **조인스HR(대표이사 이재산)**은 지난 19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디지털 시대의 소통을 위해 새로운 리더십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화 해법을 특강 및 성공기업 사례를 통해 찾아보는 춘계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심갑보 삼익(THK) 대표이사 부회장**은 지난 7일 경북 경주 대명리조트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및 유간기관 워크샵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이 자리에는 도 및 시군 담당자와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경북 경청) 및 중소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채바다 고대항해탐험연구소 소장 (시인)**은 지난 4일 제주에서 시작한 10일간의 자전거 국토순례를 마치고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번 자전거 국토순례는 대지진으로 고통 받는 일본 국민들에게 민간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전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채 소장이 직접 기획했으며, 한일 간 청소년들의 우정을 다져주고자 제주 지역 초·중·고교생들이 직접 쓴 위로편지 13,000통을 무토 마사토시 주한 일본대사에게 전달했다. 또 국토순례 중 모은 성금 40여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채 소장은 "애초 위로편지 1,000통을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무려 13,000통이나 편지가 모여 한국인의 온정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 **한사랑농촌문화재단(설립자 김용복)**은 지난 20일, 건국대 새천년 우곡국제회의장에서 농업과 농촌 사회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숨은 일꾼을 발굴하여 제6회 한사랑 농촌문화상을 시상하였다.



■ **전능아이티(주)회장 박용팔**은 창립 28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19일 전능 '스마트닥터' 제품 발표회를 가졌다. 전능아이티는 의료정보 업체로서 1983년에 설립되어 '병의원 전산화'의 한 길을 걸어온 의료분야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으로 전국 병의원 13,000여 곳에 대한 전산화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국제 종합의료 정보 업체로 발전하고 있다.



■ **윤영상 (주)다산 회장은** 강진군이 선정한 '올해의 강진군민의 상' 교육문화부문의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5월 11일 제39회 강진군민의 날 행사가 개최되는 강진아트홀에서 열린다.



■ **최문자 협성대학교 총장(시인)**이 100편의 시를 가려 뽑아 시선집 <달고 싶은 곳>(도서출판 시월)을 펴냈다. 1982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최 총장은 그동안 왕성한 시작 활동을 통해 <귀 안에 슬픈 말 있네>, <나는 시선 밖의 일부이다>, <울음 소리 작아지다>, <나무고이원>, <그녀는 믿는 버릇이 있다> 등의 시집을 냈고, 2008년 박두진문학상과 2009년 한송문학상을 수상했다. 감리교 3대 사학 최초의 여성 총장인 최 총장은 '시 읽어주는 총장' 등의 행사를 열어 지성과 영성, 그리고 감성이 조화를 이룬 대학 문화를 만드는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 **임덕규 월간 디플로머시 회장은** 지난 23일 오전 거버넌스21 클럽 조찬 세미나에서 토마스 코즐로프스키(Tomasz KOZLOWSKI) 주한 유럽연합 대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코즐로프스키 대사는 EU 회원국들도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재선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전했다.



■ **김석문 신일팜글라스 대표이사**는 인간개발경영 자연구회 조찬세미나에 도르만스 수프림 인스턴트 커피를 매주 5박스씩 협찬해주고 있다. 도르만스 수프림 커피는 엄선된 원두로 로스팅한 후 가공하여 부드럽고 향긋한 고급원두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로 각종 판촉 및 선물용으로 사랑받고 있다. 한편, 도르만스 코리아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케냐어린이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 홈페이지 : <http://www.dormans.co.kr>

## [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

회사명	이름/직함	창립기념일
■ 주식회사 부천	이시원 사장	5월 1일
■ 부원광해(주)	박춘봉 회장	5월 1일
■ (주)한국아쿠르트	양기락 대표이사	5월 10일
■ 삼익TH(주)	심갑보 부회장	5월 10일
■ 삼이그룹(주)	김석희 회장	5월 13일
■ (주)우진	이성범 회장	5월 13일
■ 서울사이버대학	김수지 협력총장	5월 14일
■ ESODO	김진희 대표	5월 15일
■ (주)흥진플러스	추민수 대표이사	5월 15일
■ 신원헬트공업(주)	이용국 회장	5월 30일
■ (주)성한트랜스텍	박이락 대표이사 사장	6월 1일
■ (주)파로스 이앤아이	김서기 대표이사 사장	6월 1일
■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전상백 대표이사 회장	6월 1일
■ 동남갈포공업(주)	서병식 회장	6월 5일
■ 우리BM	곽창선 회장	6월 7일
■ (주)금천코퍼레이션	강연구 사장	6월 24일
■ 대성MD(주)	김영돈 부사장	6월 25일
■ (주)소예	이상숙 회장	6월 27일

## [ 소모임 소식 ]

- **인목회(회장 차진영 / 총무 박이락)**는 지난 2월 정기총회를 통하여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였습니다. 회원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회장에 차진영 성부트레이딩(주) 사장, 총무에 박이락 (주)성한트랜스텍 사장께서 향후 인목회를 이끌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회장으로 수고해주신 방기봉 (주)E&C정보기술 회장께 감사드립니다. 이후 4월 모임은 벚꽃 만발한 북한산 내추럴파크 내 카페 '마운트'에서 멋진 와인파티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화목회(회장 황석희 / 총무 홍승국)**의 3월 모임은 바쁜 가운데 화목회를 위해 수고해주는 임원진과 참석해주는 회원들을 위하여 배승호 (주)지케이21 회장이 모임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배승호 회장의 창업이야기와 삶의 노하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는 5월 모임은 오경근 사진가로부터 자전거를 활용한 건강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들어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 일시 : 5월 17일(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 로얄호텔 21층(명동)
  - 참석여부 : 총무 홍승국 (H.P. 010-5305-3378)

### ■ MS클럽 1기(회장 전순표 / 총무 차송일) 3월 모임은 조지

6세가 자신의 치명적 약점인 '말더듬이'를 극복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영화 <킹스 스피치(King's Speech)>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4월 모임은 소중한 회원들과 봄나들이를 가고자 뷔띠프랑스(회장 한홍섭)를 방문하여 봄날의 오후를 만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MS클럽 2기(회장 임종렬 / 총무 김성오)는 지난 4월 18일 압

구정 한일관에서 두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날 모임은 전영수 (주)동명기술공단 회장께서 카페로 초대해 맛있는 식사를 제공하고 그동안의 봄소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MS클럽 3기(회장 심기석 / 총무 이계형)는 지난 4월 25일, 종로 발우공

양에서 아마시타 요시토 주한일본대사관 1등서기관이 미국대사관으로 발령받아 떠나게 됨을 아쉬워하며 송별회 시간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 ■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 (회장 김창승 / 총무 이계옥) 4

월 모임은 '내 인생을 성장시킨 갈등사건'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이계옥 대표의 "갈등을 춤추게 하라"라는 강연을 통해 새로운 글감찾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모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고구려>의 저자 김진명 작가를 모시고 작가의 역사 의식과 집필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작가와 대화' 시간으로 마련합니다.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 5월 9일(월) 오후 6시 30분
- 장소 : 문학의집\*서울 산림문학과 2층
- 문의 : 정용달 팀장 (Tel. 02-445-1949)

### ■ YCF(회장 황광석 / 총무 안정옥) 4월 모임은 박영숙 (사)유

엔미래포럼 대표를 초청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의 생생한 모습을 듣는 시간을 가졌





습니다. 5월 모임은 아래와 같이 숨막힐 정도로 빠르고 경쾌한 탭댄스를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 일시: 5월 12일(목) 오후 6시 30분
- 장소: 디마떼오(혜화역 2번 출구, Tel. 02-747-4444)/아트오프탑
- 문의: 김인선 주임 (Tel. 02-445-1946)

■ **다락회(회장 정태익 / 총무 이종원)** 3월 모임은 심갑보 삼익THK(주) 회장으로부터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노하우와 매주 월요일에 보내는 이메일 '심갑보의 유리병 편지'에 대한 에피소드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월 모임은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5월 17일(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1층 그랑카페
- 참석여부: 총무 이종원 (H.P. 010-5306-8587)

■ **골프모임 인경회(회장 이웅국 / 총무 이종원)** 5월 모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5월 20일(금) 12시 56분 티오프
- 장소: 한양CC
- 대상: 인경회 정회원 및 인간개발연구원 회원
- 참석여부: 총무 이종원 (H.P. 010-5306-8587)

## [연구원 소식]

■ **정지환 인간개발연구원 편집위원 (감사나눔신문 편집국장)**이 경희대학교 교양과정대학인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객원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 ■ **본원 회원 주도, 최재형장학회 설립**

지난해 추석에 연해주 역사탐방을 다녀온 본원 회원들의 주도로 최재형 장학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위대한 CEO이자 항일독립운동의 대부이신 최재형 선생의 높은 뜻을 선양하고 고려인동포사회의 발전을 선도해나갈 고려인 대학생들을 지원하고자 3월 15일 최재형 장학회 발기인 모임을 개최하고 회장으로 김창송 성원교역 회장을 추대하였습니다.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문의: 최재형 장학회 사무총장 황광석 (H.P. 010-6222-1945)

###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강연 오프닝 시작**

본원은 매주 목요일 개최하는 조찬세미나의 다소 딱딱한 분위기를 쇄신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참석하시는 회원들에 대한 감사의 선물로 준비하고 있는 조찬이벤트에 다양한 재능기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민선아 차장 (Tel. 02-2203-3500)

### ① **이요셉 한국웃음연구소 소장\_ 제168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이요셉 소장은 강연오프닝의 첫 번째 재능기부자로 참여해 재미있는 건배사로 참가자에게 큰 웃음을 선물해주었습니다. 이요셉 소장은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웃음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기업체와 지자체에서 인기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② **송난영 소프라노의 음악선물\_ 제168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송난영 소프라노는 숙명여대 성악과에 재학 중이며, 뮤지컬 <그리스>, 전주 소리축제 및 서울대 종상 영화제 축하 공연 등에 다수 출연했습니다.



### ③ **현소 김성문 대금연주\_ 제168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현소 김성문 선생은 이시형 박사의 명상프로그램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 및 아산병원 정기연주, 미국 회도서관에서 연주 및 현소, 현적을 기증한 바 있으며, 본원의 지식나눔회원으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 Welcome to KHDI

## [신규회원]

### ■ 박주만 이베이 G마켓-옥션 대표이사 (특별법인회원)

이베이는 39개국에 2억 8천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글로벌 최대 온라인 마켓회사이며, 이베이 옥션·G마켓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구매자가 방문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사이트로서 세계적으로 체계적인 판매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7번지 강남파이낸스센터
- 전화 : 02-598-7021
- 홈페이지 <http://www.gmarket.co.kr>, <http://www.auction.co.kr>

### ■ 이기원 북한연구소 이사장 (법인회원)

북한연구소는 1971년 설립 이래 30여 년간 자유민주 수호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면서 북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 모두가 지향하고 있는 통일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31-4
- 전화 : 02-2248-2392
- 홈페이지 : <http://www.nkorea.or.kr>
- 참여임원 : 계창호 소장, 김병수 이사, 원기섭 부장, 신면관 부장
- 추천인 : 김병수 지원실업 회

### ■ 조태권 광주요 회장 (법인회원)

한식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광주요 조태권 회장은 지난 2009년, 제1614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에서 강연을 하신 바 있다. 광주요는 조선 왕실에 진상하는 도자기를 굽던 광주관요의 유서 깊은 전통과 장인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고유의 맛과 멋을 세계에 널리 알려 한국 식생활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6-13 제이플러스빌딩 7층
- 전화 : 02-3445-8030
- 팩스 : 02-3443-0756
- 홈페이지 <http://www.kwangjuyo.com>
- 참여임원 : 조희경 이사

### ■ 허봉수 EBM통합의학센터 원장 (개인회원)

허봉수 원장은 체질에 따른 섭생을 통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25년 동안 섭생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관련 저서로 <밥으로 병을 고친다>, <밥이 보약이다>, <밥상이 의사다> 등이 있다.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9-7 거암빌딩 4층
- 전화 : 02-3271-9005
- 팩스 : 02-3271-9503
- 홈페이지 : <http://www.ebmkorea.com/>

### ■ 이윤호 한국산업인력공단 기획운영이사 (개인회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 및 근로자 평생직업능력 개발지원,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개최 및 참가, 해외취업 알선과 연수과정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 전화 : 02-3271-9005
- 팩스 : 02-3271-9503

### ■ 최종우 액트기술(주) 대표이사 (개인회원)

액트기술은 차별화된 Solution Consulting과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IT 측정 분야에서 최고의 solution을 제공하는 공급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가양3동 1487 가양테크 노타운 902호
- 전화 : 02-3661-2284
- 팩스 : 02-3661-9003
- 홈페이지 : <http://www.act.co.kr>
- 추천인 : 추민수 (주)흥진플러스 대표이사

■ **설동순 순창전통별미고추장 영농조합법인 대표(개인회원)**

순창전통별미고추장의 모든 식품은 우리나라 제 1호 장류특구에서 생산되는 식품이며, 순창전통 고추장 제조기능인이신 설동순 대표가 직접 기계 생산이 아닌 자연기후와 손맛으로 장기간 숙성시켜 만든다. 또한 설동순 대표는 전라도 토종 매운 맛을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요리책 《매운맛 행복 밥상》을 지난 4월 14일에 출간하였다.



- 주소 : 전북 순창군 순창읍 265-12번지
- 전화 : 063-653-3759
- 팩스 : 063-653-3659
- 홈페이지 : <http://www.sunchangfood.com>

■ **최인숙 마리인터내셔널 대표이사(개인회원)**

사람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리인터내셔널은 호텔용품 수입 업체로서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5-Star 호텔에 최고급 호텔 용품을 제공하고 있다.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COEX 2층 A-43호
- 전화 : 02-6000-3069
- 팩스 : 02-6000-3063
- 홈페이지 : <http://www.hotel-emall.com/>
- 추천인 : 공한수 Big Dream & Success 사장

■ **김영후 세계재난구호회(WDRO) 사무총장(개인회원)**

세계재난구호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식허가를 받은 UN ECOSOC에 등록된 국제구호NGO 단체로서 국가, 민족, 종교, 이념의 벽을 넘어 재난이 발생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긴급구조 및 구호활동을 펼쳐 재난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생존을 돕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다.



-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인현동 1654-4
- 전화 : 02-6401-9376
- 팩스 : 02-6402-9376
- 홈페이지 : <http://www.wdro.or.kr>

■ **임중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팀장(개인회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회장 이석채)는 통신사업자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IT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에 설립되어 공정경쟁 조정 및 이용자 권익보호, IT정책연구 및 지원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4-9 연합회빌딩 7층 KIF투자조합
- 전화 : 02-2015-9104
- 팩스 : 02-2015-9119
- 홈페이지 <http://www.ktoa.or.kr>

■ **채바다 고대항해탐험연구소 소장(지식나눔회원)**

지난 2009년 제27회 제주 CEO 섬머포럼에서 “하멜과 네덜란드를 만나면 세계가 보인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바 있는 채바다 소장은 울산 중구청에서의 강연료를 본원에 기부하고 2011년 지식나눔회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 주소 :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2번지
- 전화 : 064-782-1235

■ **김소연 보궁자연요법연구원 소장(지식나눔회원)**

김소연 소장은 평양의대를 거쳐 '장수연구소'에서 김일성만을 위한 자연요법을 연구하였으며, 1992년 6월 압록강을 건너 11월 24일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여 현재 보궁자연요법연구원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 소장은 구미시청에서의 강연료를 본원에 기부하고 2011년 지식나눔회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 2011년 아카데미 본격 협약 체결 구제역 여파 딛고 평생학습 열기 전국으로 확산

### 〈교육컨설팅소식〉

#### ■ 지방자치아카데미, 현장과 호흡하는 밀착형 아카데미로 발전



지난해 11월 발생해 3개월 동안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 사태가 3개월 만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따라 본원과 함께하고 있는 전국의 지방자치아카데미가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 광진구와 강서구를 비롯하여 충청권의 부여, 영남권의 상주와 창원, 호남권의 장성군, 광주 동구 등 약 40여 개 지자체와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기타 다수의 지자체와 활발한 교육 논의를 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17일 프로축구단 상무피닉스가 연고지를 경북 상주시로 이전함에 따라 상주시와 본원은 지역 축구의 인프라 구축과 축구도시로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위해 신문선 MBC SPORTS+ 축구해설위원을 모시고 “축구야 놀자”를 주제로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한편, 대전 서구청의 ‘서람이자치대학’은 4월 15일 고승덕 국회의원을 모시고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를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경주시 ‘화백포럼’은 4월 27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모시고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 ■ 기업·공공기관 실무 중심의 사례교육과 명사특강 병행

기업 정기교육에서는 대응제약 경남지역본부에 김의수 TNV어드바이저 수석팀장이, 대한조선 승진자교육에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장이, 동양척화 노사화합특강에 한근태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가, 골든듀 혁신운동 발대식에 서두칠 전 동원시스템즈 부회장이, 한진해운 직원영어특강에 광영일 광영일영어나라 대표가 각각 특강에 나섰다.

공공기관 정기교육에서는 JDC와 함께 하고 있는 ‘글로벌아카데미’가 3월에 개강해 ‘제주글로벌아카데미’에 신달자 작가가 개강강연에 나섰으며, 이석연 전 법제처장, 조관일 전 석탄공사 사장, 서희태 지휘자 등이 강연에 나섰다. ‘대학생글로벌아카데미’에는 경제평론가 박



경철 원장과 박종하 창의력 컨설턴트 등이 강단에 올랐다. ‘서귀포글로벌아카데미’에는 표경흠 웰빙 대표, 홍웅식 원장, 이요셉 웃음치료사 등이 강연에 나서 글로벌아카데미를 이어갔다. 우정사업본부 ‘포스트아카데미’에는 허영호 탐험가와 지식생태학자 유명만 교수가 특강에 나섰고, 국민건강보험 대구지역본부에서는 공병호 소장이 “성공을 꿈꾸는 자기경영노트”를 주제로 직원특강에 나섰다.

#### ■ 국방부 ‘MND아카데미’ 개설, 군 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



본원과 국방부는 지난 3월 15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해 과장급 이상 정책관리자들의 경영마인드 증진과 활력있는 국방문화 조성을 위한 국방부 ‘MND아카데미’ 협약을 체결하였다. MND아카데미는 지난해부터 국방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소통하는 국방문화 방안 중 하나로 월 2회 점심시간을 이용해 민간 CEO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해 강연을 듣고, 상호 정보 교류의 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협약식 다음 날에는 시사평론가 정관용 교수를 모시고 “21세기 소통의 리더십”을 주제로 개강 강연을 진행하였다. 이후 강연에는 이승환 훔플러스그룹 회장, 경제평론가 박경철 원장, 소윤창 IBM 상무 등을 모시고 아카데미를 진행하였다.

## 〈교육컨설팅기관 소식〉

### ■ 우정사업본부, 김명룡 신임 본부장 취임

우정사업본부 김명룡 신임 본부장이 지난 12일 우정사업본부 10층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김 신임 본부장은 취임사에서 “감동의 우편서비스와 모두가 행복한 생활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히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 “우정사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익성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면서 “도시서민과 농어촌, 도서벽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우정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우체국 네트워크의 공동이용과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가의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우체국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 출신으로 동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정보통신부 기술정책과장, 전파방송 기획과장 등을 두루 거친 전문가로, 강원 체신청장과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을 역임했다.



### ■ 김항식 국무총리, JDC 방문 격려



김항식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제주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JDC(이사장 변정일)를 방문했다. 김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JDC가 추진하고 있는 7대 선도 프로젝트의 성공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사명감을 갖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총리는 “영어교육도시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핵심 프로젝트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으며, 헬스케어타운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법적 제도적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 ■ 아산시, 시민참여 정책기획단 구성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민선5기 변화와 소통을 통한 행복한 아산건설을 위하여 시정 전반에 걸친 자문과 제안,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될 아산시 시민참여 정책기획단을 구성 운영한다. 정책기획자문단은 참여자치, 교육복지, 녹색도시, 산업경제, 문화관광체육 등 5개 분과 52명으로 교수, 연구원,

전직 중앙부처 공무원, 시민대표 등 각계각층의 전문적 지식이나 소양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시정전반에 걸친 브레인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 하동군, 햇아생녹차수확 시작

경남 하동군(군수 조유행)은 임금님 진상품으로 잘 알려진 화개면, 악양면 일대 아생 녹차밭의 햇차 수확을 시작했다. 곡우(穀雨)를 앞두고 4월 중순에 채취하는 차입은 부드러움과 함께 맛이 깊고 은은해 녹차 중 최고로 꼽는다. 곡우 전에 생산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우전(雨前)이다. 국내에서 녹차가 처음으로 재배된 ‘차 첫 재배지’인 하동 화개면 일대는 섬진강에 인접해 안개와 습기가 많은데다 차 생산시기에 밤낮의 기온차가 커 차나무 재배에 최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



### ■ 양양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추진

강원 양양군이 지역,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와 주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연관람 기회가 적은 오지마을 주민들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공연단체들이 오지마을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단체 모집에 나섰다. 군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공연능력을 갖춘 4~5개 단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 ■ 강화군, 한국관광공사 및 국립공원관리공단과 MOU 체결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강화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세계화를 통해 관광활성화와 지역발전 협력을 위해 한국관광공사 및 국립공원관리공단과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갯벌생태계 보전에 힘쓰는 동시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프로그램 개발, 강화갯벌 및 문화자원 등에 대한 국제적인 브랜드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 향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 2011 JEJU CEO SUMMER FORUM

세계경제의 진화와

신아시아경제의 메가트렌드

**CEO, 세상을 움직이는 마에스트로  
창조적 영감과 마르지 않는 열정을 지휘하라!**

- 일정: 2011년 8월 3일(수) ~ 8월 6일(토) 3박4일
- 장소: 제주 롯데호텔
- 주최: 인간개발연구원 /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 한국경제신문
- 참가대상: 기업, 기관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과 가족 400명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이신 CEO 여러분,  
창조적 영감과 열정으로 미래를 지휘할 CEO 여러분들을  
최고의 지혜여행, 2011 제주 CEO 섬머포럼에 가족과 함께 모십니다.

이번 포럼은 인간중심의 새로운 시선에서 경영의 지혜와 성장의 동력을 발견하는 색다른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인간은 수없는 진화를 거쳐 지금의 황금시간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황홀함과 함께 동시대에 느껴야 하는 그림자 또한 우리의 진화 속에서 함께하는 아픔들이 아닌가 합니다. 과연 창조적 진화란 무엇인가? 새로운 G2 시대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수많은 질문 속에서 우리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감성과 문화를 통해 창의 경영을 충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순조로운 도전과 100년 기업으로 가는 희망의 항해를 다양한 분야의 멘토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하는 포럼 구성으로 기업의 성장과 함께 균형 잡힌 인생의 성공을 위해 3박4일 동안 가족의 행복을 더하겠습니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희망의 여행에 함께하셔서 비전과 경영, 행복한 휴식을 동시에 나누는 시간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한민국 창조적 진화의 전략

※1일차 프로그램 : 8월 3일 수요일

일정	프로그램
	참가자 등록 및 체크인
15:00-15:10	<b>[개회사]</b>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윤계섭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회장
15:10-16:10	<b>[기조강연]</b> ● 한국경제 성장전략: 상생과 융합의 하모니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16:20-17:20	<b>[특별강연]</b> ● 세계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 동력 김순택 삼성그룹 부회장
17:30-18:30	<b>[인재전략]</b> ● 인재혁명으로 세상을 바꾼다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
18:30-20:00	<b>&lt;환영만찬&gt;</b> 한여름 밤 푸른 제주의 낭만 참가자 친교한마당

## CEO, 창조적 영감으로 경영을 재구성하다

※2일차 프로그램 : 8월 4일 목요일

일정	프로그램
07:00-12:00	2011 제주 CEO섬머포럼 골프대회 / 제주올레 100배 즐기기 & 자유관광
12:00-14:30	점심식사 및 자유시간
14:30-15:30	<b>[스마트경영1]</b> ● 스마트 시대의 정책과 비전 황철증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15:40-16:40	<b>[스마트경영2]</b> ● 새로운 성장동력, 스마트 영역에서 찾아라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16:50-17:50	<b>[경영특강1]</b> ● 세계를 담은 락앤락의 성공비결 김준일 락앤락 회장
18:00-19:00	<b>[경영특강2]</b> ● 신한금융그룹의 신성장 전략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19:00	개별 저녁식사 및 자유시간

## 동아시아시대, 새로운 꿈을 꾸다

※3일차 프로그램 : 8월 5일 금요일

일정	프로그램
07:00-12:00	인경회 회장배 골프대회 / 제주올레 100배 즐기기 & 자유관광
12:00-14:20	점심식사 및 자유시간
14:30-16:10	<b>[새로운 동아시아시대의 준비]</b> ● 아시아 협력 기금 100억 불 창설 제안 발제1. 이명성 중국기업가협회 상임부회장 발제2.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토론좌장 : 어운대 KB금융지주 회장 <b>[중국 그 가능성의 흐름을 읽어라]</b> ● 세계경제의 메가트렌드와 중국경제의 아시아화 조순 전 경제부총리 후안강 청화대 교수
	만찬 & 골프대회 시상식
18:50-19:50	<b>[제주도의 푸른밤 퓨전콘서트 &amp; 와인파티]</b>

## 자본주의, 자연과 생명을 만나다

※4일차 프로그램 : 8월 6일 토요일

일정	프로그램
07:00-09:00	아침식사 및 체크아웃
09:00-10:40	<b>[대토론회]</b> ● 자연자본주의와 생명자본주의의 신성장 동력 : 환경경영의 메가트렌드 ● 발제: 김영호 유한대학 총장 / 전 산자부 장관 ● 대담: 이만의 환경부 장관 장태평 한국벤처농업포럼 회장 /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10:50-11:40	<b>[특별강연]</b> ●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모멘텀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11:40-11:50	<b>[클로징 리마크 &amp; 폐회인사]</b>
11:50-12:00	체크아웃 및 단체항공 이동

※ 상기 프로그램은 섭외 중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장소영 실장 ☎ 02-2203-3500, 내선 0005



# 초상화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

서양회화의 역사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시대의 화가 지오토를 기점으로 할 때 700년이 된다. 그 이전에도 많은 화가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가깝게 사실적으로 인물을 묘사하는 방법을 창안한 것은 지오토가 최초였다. 그로부터 서양회화는 보다 현실적인 감각의 인물화가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1



2

## 서양회화사에서 차지하는 초상화의 가치



6



7

초상화는 왕이나 그 주변의 인물 즉, 왕족과 귀족 그리고 부호들이 수요처가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거나 후세에 전하고 싶은 욕망이 초상화로 나타난 것이다.

르네상스 이후 라파엘로를 비롯하여 티치아노, 에이크, 홀바인, 렘브란트, 루벤스, 벨라스케스, 할스, 반다이크, 호가스, 레이놀즈, 그리고 세잔느, 고흐는 물론이요, 러시아의 레핀 등 세계미술사를 화려하게 장식한 화가들의 초상화는 너무나 유명하다.

이들이 그린 초상화는 왕과 왕족, 귀족, 부호 등에 국한했지만 많은 화가들은 자신이 모델이 되는 자화상도 많이 남겼다.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은 죽어서도 자신의 존재

를 후세에 알리기를 원했다. 그러기에 주문형식의 초상화를 많이 남기게 되었고, 결국 그 작품들이 서양회화사를 장식하게 된다.

설령 소박하게 한 가정을 꾸려온 평범한 시민일지라도 자신의 가계가 이어져 훌륭한 인물이 배출되기를 소망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런 염원에서 누구나 사진을 남기고 사람에게 따라서는 초상화를 남긴다.

사람에 따라서는 그 이외의 어떤 의미를 담고자 하는 경우도 없지 않으리라. 어떤 경우이든 사진보다는 화가가 직접 그리는 초상화의 가치가 높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무엇보다도 화가에 의해 그려진 초상화는 전시회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고, 인쇄된 이미지로 남아 미술사를 장식하게 된다.

회화가 존속하는 한 특정인물은 물론이요, 일반 시민들의 모습을 담은 초상화가 미술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 작가의 일생을 대변하는 많은 작품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야말로 초상화의 영속적인 생명력을 담보하는 것이기에 그렇다.



회화가 존속하는 한 특정인물은 물론이요,  
 일반인들의 모습을 담은 초상화가 미술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 작가의 일생을 대변하는 많은 작품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야말로  
 초상화의 영속적인 생명력을 담보하는 것이기에 그렇다.



3



4

1,2,3,4,5. 임종렬 화백 작품 - 그리움  
 6. 반다이크 - 화가 마르틴 페핀의 초상  
 7. 레핀 - 작곡가 글라주노프의 초상



5

### 초상화의 예술적 가치에 확고한 신념 부여

한국에서도 초상화 수요는 적지 않다. 다만 사적인 주문형식으로 제작되기에 밖으로 노출되는 일이 적을 뿐 의외로 초상화가 많다. 역대 대통령을 비롯하여 관계 및 재계, 그리고 개인들이 초상화를 의뢰한다.

이 가운데 더러는 전시회를 통해 공개되기도 하지만 그 숫자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전을 통해 꾸준히 초상화를 발표하는 임종렬은 예외적인 경우일 수 있다. 이렇듯 작품전을 통해 발표하는 것은 초상화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따라서 임종렬의 초상화가 주목 받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임종렬의 초상화는 대상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하나의 독립된 그림으로써의 가치를 중시한다. 독립된 그림으로써의 가치란 특정인을 위한 그림이라는 선입견을 전제로 하고라도 거기에는 능히 음미할만한 조형적인 아름다움 즉, 감상적인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부단히 의식한다. 사실적인 표현양식의 그림이 지녀야 할 조형적인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편, 시각적인 아름다움도 간과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추구하는 초상화의 개념은 몸과 마음이 정지된 죽은 표정이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사실성을 포착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생명의 아름다움, 그 진실에 영속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초상화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의 인물화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되 전통적인 초상화 양식에서 탈피하고 있는 까닭이다.

요약하면 임종렬의 초상화는 부드러우면서도 곱고, 또한 섬밀한 시각적인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 특히 밝은 빛을 강조함으로써 전체적인 색조는 맑고 온화하다. 뿐만 아니라 밝은 햇살에 의해 피어나는 생생한 피부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실제의 인물과 마주하고 있는 듯싶은 느낌에 빠져들도록 한다.

또한 빛에 의해 깨어나는 색채의 아름다움과 함께 인물의 내적 감정까지 파고드는 그의 섬세하고도 미려한 미적 감각은 초상화 형식의 작품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실증한다. 그림은 사진과 달리 회화적인 이상미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의 초상화 형식의 작품이 지닌 특별한 가치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

지난 3월 11일, '찾아가는 CEO교실' 여덟 번째 행사로 국내 최대의 내륙 산업단지로 첨단 수출도시의 위용을 자랑하고 있는 구미시를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사장(2010년 9월, 제1661회 조찬세미나 강사)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탄소섬유소재 등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미공장을 방문하였다. 이밖에도 LG실트론(이희국 사장, 2006년 1월, 제1436회 조찬세미나 강사) 방문, 남유진 구미시장과의 만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3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를 김석문 신일팜글라스 사장의 방문기로 소개한다.

- 편집자 주

제8회  
찾아가는  
CEO교실

세상을 이롭게  
첨단기술과 현장주의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난 3월 11일 진행된 인간개발연구원 주최 여덟 번째 '찾아가는 CEO 교실'에 참가했다. 거기서 보고, 듣고, 생각한 것을 기록으로 남긴다.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CEO 교실'은 매주 목요일 조찬포럼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영자연구회와는 또 다른 맛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먼저 현장에서 당사자의 생생한 육성을 통해 경영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 마디로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다. 하루 종일(때로는 1박2일) 함께 움직이다 보니 회원들과 좀 더 깊고 넓게 교제할 수 있었던 것도 망외의 소득이었다.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사장의 초청으로 성사된 이번 여행의 행선지는 '한국의 실리콘벨리'라 불리는 경북 구미였다.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이 이끄는 방문단은 오전에 도레이첨단소재 구미공장을 둘러보고 임직원과 대화를 나눴으며, 오후에는 구미공단 전망대, 박정희 대통령 생가(生家), LG실트론도 방문했다. 남유진 시장과 만찬을 하면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원면을 생산하던 제일합섬(1972년 설립)에서 출발했다. 우여곡절 끝에 1995년 삼성그룹에서 분리됐으며, 1999년 도레이첨단소재로 거듭나면서 원사, 필름, 부직포는 물론이고 현재 IT 소재까지 생

산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1조 1361억 원, 영업이익은 1910억 원이었다. 전체 직원 수가 1058명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참으로 놀라운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다.

폴리에스테르 원사 공장을 견학할 때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극세사(極細絲)였다. 여기서 생산하는 폴리에스테르 원사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보다 얇게 수축해 가공한 섬유로, 거의 모든 공정이 무인화, 자동화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현대식 공장에서 생산된다. 1g의 폴리에스테르 원사를 풀면 그 길이가 9천km나 되는데, 9kg이면 지구 한 바퀴를 감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이영관 사장의 현장리더십이 경쟁력의 원천  
탄소섬유 등 신성장동력 집중투자로 미래시장 주도할 것**

지면의 제한 때문에 도레이첨단소재의 강점과 장점을 여기서 모두 소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평균 14.5년에 이르는 근속년수, 2%에 불과한 퇴사율(최근 5년 이내 이직률 1.4%)은 반드시 언급해야 할 것 같다. 종업원의 잦은 이직에 따른 기술 축적의 어려움이 대다수 중소기업의 고민이라는 점에서 도레이첨단소재의 탁월한 경쟁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경쟁력은 이영관 사장의 리더십이 있기에 가능했다. 1973년 입사한 이 사장은 2000년 사장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줄곧 현장을 지켜왔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는 경영자로 알려져 있다. 대졸 출신이면서도 신입사원 시절부터 현장에서 근로자들과 교대근무를 해왔던 덕분에 800명의 직원 이름을 외우고 있다. 많은 사람이 이 사장에게 그 비결을 묻자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역지로 외우려 하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치며 상도 주고 벌도 주다 보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도레이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요즘 이 사장과 임직원이 붙들고 있는 화두이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한 회사의 운명은 전환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사장은 “내가 입사할 시절만 해도 삼성보



3



4



5



6



7



8



9

다 도레이의 기업 규모가 훨씬 컸지만 1970년대 후반 다른 선택을 하면서 역전되고 말았다”면서 도레이첨단소재가 환경, 에너지, 수처리, 탄소 섬유 등 신성장동력에 집중투자 하는 이유를 밝혔다.

특히 탄소섬유는 기존 제품에 비해 무게는 4분의 1이지만 강도(強度)는 10배나 세다고 한다. 현재 보잉747 여객기는 날개만 탄소섬유를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조만간 동체의 재료까지 탄소섬유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 경우 항공사는 30%의 연료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탄소섬유 시장의 규모가 무한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레이첨단소재가 2020년 매출액 4조, 영업이익 4천억을 목표로 삼은 데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던 셈이다. 격물익세(格物益世), 도레이첨단소재 연구소 건물 앞 표석에 새겨진 문구다.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여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비전이 반드시 이뤄지길 기대한다. **김재**

1. 도레이첨단소재 회사소개 시간
2. 이영관 사장과의 간담회
3. 도레이첨단소재 견학 후 기념촬영
4. 도레이첨단소재 공장현황실명을 듣고 있는 회원들
5. 구미공단 전망대에서 기념촬영
6. LG실트론 방문 후 기념촬영
7. 남유진 구미시장
8. 이희국 LG실트론 사장
9. 필자-김석문 사장

지난 4월 22일, '찾아가는 CEO교실' 아홉 번째 시간은 지방자치 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70회를 기념하기 위해 전남 장성군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장성아카데미 교육과 장성투어의 결합으로 진행되는 두 번째 시간으로 김양수 장성군수와 전남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보해양조 임건우 회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30여 명의 회원들은 보해양조 도약의 전진기지인 장성공장을 방문하고 장성아카데미 참석 후 편백나무숲으로 유명한 죽령산휴양림 등을 둘러보았다.

- 편집자 주

제9회  
찾아가는  
CEO교실

장성의 향기를 찾아  
장성아카데미 그리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날 밤 시작된 봄비가 여전한 이른 아침. 인간개발연구원의 달리는 공부방, 아홉 번째 '찾아가는 CEO 교실'이 장성을 향한 여정의 첫 발을 내딛었다. 4시간여의 이동시간 동안 새벽을 열어준 달리는 공부방은 회원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삶의 향기를 창조하는 60년 전통의 보해양조**

버스가 장성군내로 접어들고 잠시 후 보해양조 장성공장에 도착했다. 이른 아침의 봄비가 장성에도 내리고 있었다. 정종태 보해양조 공장장과 이재호 장성군 교육계장의 환영을 받으며 일행은 공장으로 들어섰다. 보해양조는 1950년 설립 이후 1970~80년대 주류시장에서의 업체 간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지역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해 전남지역 소주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다. 단풍나무 수약을 함유한 소주 '앞새주'를 비롯해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공식만찬주로 선정된 '보해복분자주', 5년 숙성 매실주 '매취순' 등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세계 각국에서 주류 및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장성공장은 1991년 5월 가동을 시작해 연 생산 능력 20만kl의 초현대식 시설을 갖춘 공장으로 보해양조 제2의 도약기를 연 대표적인 공장이다.

일행은 보해양조 홍보 영상물을 시청한 후 공장 견학 코스를 따라 이동하며 보해양조의 역사 및 상품, 사업현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매취순 숙성고에서는 6만ℓ 용량의 탱크에서 15년간 매취순이 숙성되고 있었다. 내용물을 시가로 계산하면 약 12억 원에 달하며 숙성고에는 총 360개의 탱크가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일행은 보해 막걸리 '순희'를 만드는 공장을 둘러보았다. 술의

숙성은 그 술의 완성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술이다. 술을 숙성시킴으로써 술 안의 수분과 알코올의 구조가 견고해져서 술맛을 더욱 부드럽게 하고 그 향을 깊게 한다고 한다.

막걸리 공장 견학을 마치고 보해양조 측에서 준비한 오찬이 이어졌다. 오찬 후 일행은 '21세기 장성아카데미'에 참여하기 위해 버스에 올랐다.

### 장성의 향기가득한 행복한 CEO교실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1995년 9월,故 김홍식 장성군수와 연구원 장만기 회장이 장성군 공직자와 군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한 프로그램으로 지방자치아카데미의 효시이자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16년을 쉬지 않고 달려온 장성아카데미는 현재 704회(2011년 5월 1일 기준)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매일 4주차 교육은 장성투어와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찾아가는 CEO교실 또한 703회 장성아카데미를 겸한 제2회 투어프로그램과 함께 기획되었다. 703회 강좌는 공석영 전 동덕여대 교수를 모시고 "유머행복학"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일행은 장성지역 경제인연합회 회원 40여 명과

함께 청강했다.

계속되던 빗줄기는 필암서원 탐방과 축령산 휴양림 방문을 앞두고 그쳤고, 일행은 바로 필암서원으로 향했다. 필암서원은 사적 제 242호로 선조 23년(1590)에 하서 김인후(1510~1560)를 추모하기 위해 그의 고향인 기산리에 세워졌다. 1597년 정유재란으로 불타 없어졌으나 인조 24년(1624)에 다시 지었다. 현종 3년(1662)에는 임금께서 '필암서원'이라고 쓴 현판을 직접 내려 보내주었으며, 1672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 세워졌다.



필암서원을 거쳐 일행은 축령산휴양림에 올랐다. 축령산은 울창한 편백나무숲으로 유명한데, 편백나무는 피톤치드 성분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나무로 알려져 있다. 편백나무를 비롯한 각종 침엽수들 사이로 이동할 때 마침 비가 그치고 자욱해진 안개가 그 운치를 더했다.



이번 산행의 백미는 현소 김성문 선생의 대금연주였다. 안개 사이로 젖어드는 대금소리는 주위에 가득한 피톤치드와 함께 일행의 가슴과 뇌까지 맑게 정화시켜주는 듯했다. 이후 일행은 시인이자 문학평론가인故 임종국 선생의 조림지와 공적비를 거쳐 산행을 마치고, 박기열 장성부군수와 함께 만찬 후 귀경길에 올랐다.

내리던 비로 인해 편치 않은 긴 여정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삶은 내색 없이 열정적으로 참여한 회원들 덕분에 더욱 뜻깊은 시간을 가



질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위해 버스를 제공해주신 장찬기 해동재단 회장과 장성군, 보해양조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KH**

- 1,2. 보해양조 공장을 둘러보는 회원들
3. 보해양조에서의 오찬
4. 703회 장성아카데미
5. 필암서원에서의 기념촬영
6. 김성문 선생의 대금연주
- 7,8. 안개낀 축령산 자연 휴양림에서

## 명사초청특강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국방부 'MND아카데미'

3월 16일(수)

정리 · 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kr)

# 21세기 소통의 리더십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지방자치가 발전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병영선진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군부대를 대상으로 아카데미가 시작되어 현재 공군본부, 육군본부 등에서 정기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는 국방부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대령 이상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MND아카데미'가 개강해 변화와 트렌드 인식, 창조적 업무수행 역량 고취는 물론 국방부 관계자들의 능력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등 정보화를 통한 학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사초청특강에서는 지난 3월 16일, 국방부에서 "21세기 소통의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한 정관용 교수의 개강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 ●정관용 교수

1962년 생으로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국민대 정치학 석사를 거쳐 한양대 신문방송학 박사과정에 있다. (재)한국사회과학연구소 정책기획실장, (재)나라정책연구원 기획실장, 프레시안 이사 등을 역임했다. 시사평론가로 활동하면서 SBS 라디오 '뉴스대행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열린토론', KBS 1TV '일요진단' 등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재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미국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동안의 활동으로 제34회 한국방송대상 올해의 방송인, 서울언론인클럽 제23회 언론상 특별상 등을 수상했으며, <우울한 세상과 따뜻한 대화>, <사람과 책>, <나는 당신의 말할 권리를 지지한다> 등의 저서가 있다.

토론(討論)을 한자로 풀어놓고 보면, 말씀 언(言)과 마디 촌(寸), 말씀 언(言)과 둥글 룬(輪)자가 합쳐서 단어를 구성하고 있다. 할 말을 토막토막 마디를 쳐서 바뀌처럼 굴러가게 하는 것이다.

### '난 맞고 넌 틀렸다'는 사고로는 토론 안 돼

토론의 첫 번째 구성요소로 논제가 있다. 논제에는 적합한 논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예를 들어 국방부 안에서 살인사건이 생겼다. 범인으로 한 분이 지목된다. 여기 계신 한 분이 살인자라고 주장하고, 당사자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 이것은 토론의 논제로 적합치가 않다. 두 입장 모두 옳지 않기 때문이다. 논제는 두 입장 모두 옳을 수 있을 때를 전제로 한다.

토론이란 하나의 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 설득하면서 공통의 합의 기반을 넓혀가는 과정이다. 이 때 1) 상대방 생각을 바꿔 놓겠다. 2)내 생각을 바꿔 보겠다. 1)상대방 생각의 잘못된 부분을 바꿔 놓겠다. 2)내 생각의 잘못된 부분을 바꿔보겠다는 두 가지 마음가짐이 있을 경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첫 번째 생각은 엄청난 착각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오늘 나는 이 이야기를 드리러 온 것이다. 논리적, 형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왜 1번을 선택하셨는지도 잘 알고 있다. 상대방 생각을 바꿔놓겠다는 생각으로 이야기했다면 그 논리적 전제는 '난 맞고 넌 틀렸다'는 생각이다.

이런 생각으로 듣게 되면 긴 이야기 중에서 동의할 이야기도 있겠지만 틀린 이야기만 쭉쭉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디서 결론과 공통의 합의 기반이 나오겠는가?

점심식사 대화를 예로 들겠다. "오늘 점심 장면 어때? 동네에 정말 맛있는 중국집이 생겼어." "언제 생겼어?" "응, 한 2주 전에 생겼는데 맛이 예술이야" "아! 그렇게 맛있어? 근데 사실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도저히 자장면은 안 되겠고, 오늘은 깍두기 국물에 설렁탕을 먹었으면 살겠는데."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먹고 다녀? 할 수 없지. 그럼 오늘은 설렁탕 먹으러 가자."

이런 것이 일상적인 토론이다. 이런 경우 절대 설렁탕집에 갈 수 없다는 분이 계시겠는가? 특이하게 그런 분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일상적인 토론을 보면 상



대방의 말 중에서 솔깃한 부분이자 내가 미처 모르고 있던 사실들을 귀 기울여 듣고 수용하는 과정이 토론이다.

### 나의 부족함을 상대로부터 배우는 것이 토론

일상적으로 하는 토론이란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상대방의 어떤 말에 귀 기울였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토론했는가?'하는 마음가짐 하나에 따라서 나의 토론 상대방은 꺾어 쓰러뜨려야 할 적이 될 수도 있고 스승이 될 수도 있다. 평생을 스승에 둘러싸여 살겠는가, 적에 둘러싸여 살겠는가? 설득이란 단어를 썼다는 것은 내가 설득할 준비가 되어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토론이란 내 생각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마음가짐 하나에 따라 상대방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꺾어 눌러야 할 적이 될 수도 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내가 설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는 부분부터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이 설득의 법칙이다.

기다리면서 주어진 논제를 둘러싼 두 관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과정이 서로가 내부에 들어가 보는 진정한 대화이다. 그 많은 토론의 과정들이 인격과 지식과 인품과 품성을 만들어왔던 것이다. 상대방이 인정할 수 없는 부분부터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이 설득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내가 나의 위치에서 나의 생각과 주장과 논리를 받으라고 하면 상대방으로부터는 반박만 나온다.

여러분이 왜 1번에 손을 드셨는지 안다. 방송토론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한다. 카메라를 향해서 각자 자기의 말을 한다.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주장을 펴서 1%의 국민들이라도 내 편을 만들겠다는 정

치적 목적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이다. 맞은 편 사람들을 설득할 마음이 없다.

두 번째는 소속 집단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싶다는 목적이 있다. 대부분 찬반 대립되는 쟁점에 대한 일반적 의견 분포를 보면 가운데 부분은 숫자가 많고 양쪽으로 갈수록 낮은 수치를 보인다. 보통 방송토론은 이런 양쪽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 토론을 붙이면 상대방에 대한 공격 위주의 토론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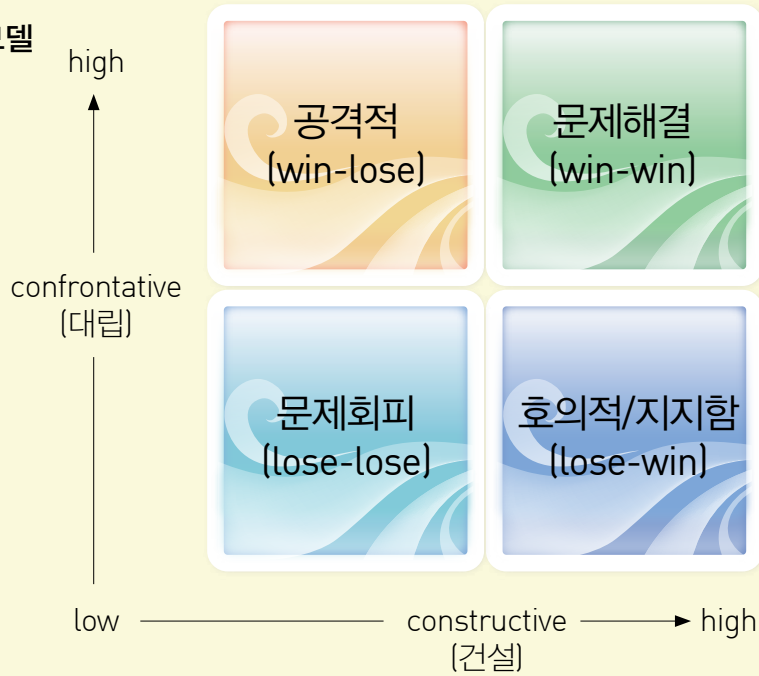
'캡틴티스'란 말이 있다. 리더의 잘못된 결정이 조직 전체를 치명적인 상황으로 몰아가는 경향을 말하는 단어이다. 미국의 한 병원 실험에 의하면 의사 몇 명이 실험을 하면서 어떤 환자에게 허용치가 넘는 두 배의 주사약을 처방하라고 연락했는데, 23개 병원에서 모두 다 실천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캡틴티스 현상은 권위적인 조직에서 많이 벌어진다. 지시가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보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다. 강한 조직은 집단 움직임이 강하다. 군대와 같은 조직, 상하체계가 강하고 응집력이 강한 조직일수록 캡틴티스가 나타날 경향이 월등하게 높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판단에 대해서 옳은지 틀린지 끊임없이 물어야만 한다. 그렇게 하여 치명적인 의사결정을 막을 수 있다.

###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면 나부터 달라져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이란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이란 인간관계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며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언어적·비언어적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이다. 관계의 핵심은 내가 아닌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고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건설적 대립의 원칙모델



건설적 대립의 원칙모델이 있다. 이것은 인텔이 기업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부딪치는 대립의 측면과 해결책의 측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만든 4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문제를 제기할 의지도 없는 문제 회피형. 둘째, 상대방 입장에서 빨리 해결해버리는 호의적 지지형. 셋째, 푸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성질만 내는 공격형. 넷째, 건설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이다.

어떤 조직이건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은 가급적 들춰내고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단, 공격적인 방법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단계를 거쳐야 한다. 1. 무엇이 문제인지를 결정하라. 2. 이 문제를 지적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지 목표를 설정하라. 3.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잘 생각해보고 대립가치를 결정하라. 4.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라. 5. 접근방법과 문제설명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시작단계로 문제설명을 시작으로 한다. 이 때 나를 주어로 한 I-메시지를 사용해서 나의 감정 상태를 전달한다. 직원의 지각을 이야기 하는 경우를 보자


“요즘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던 자네가 기분도 가라앉고 지각도 많아져서 신상에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나와 소통의 문제가 있는지 무척 궁금하고 걱정이 된다네.”

당신의 행동으로 나와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와있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모든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반면 You-메시지는 상대방을 주어로 해서 공격하게 되는데, 그러면 상대방도 곧바로 You-메시지로 맞받아쳐서 쟁점이 사라져버리게 된다.

그 다음에는 경청이다. 상대방 감정의 흐름까지 고려해서 들어야 한다. 아무리 정제된 I-메시지로 이야기한다고 해도 지적을 당한 상대방

은 감정의 동요를 가져올 수 있다. 경청을 하고 문제를 요약하고 나면 쌍방의 해결책 제시와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 합의 및 기록을 한다. 그리고 합의된 상황이 잘 지켜질 지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캡틴티스 현상이 있는 조직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을 질책성 문책성 위주로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주장도 옳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항상 입장 차이를 중용할 수 있는 자세가 전제되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은 관계에서 상대방의 입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다.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나부터 달라져야 한다.

모든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신이 살아있을 수 있다. 문제제기가 없는 조직은 금방 썩어간다. 들추고 별리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준비된 상태로 건설적 대립관계를 지향하는 문화를 건설해야 한다. 소통하고 싶은가? 원인은 나한테 있다. 원만한 의사소통을 위해 스스로 변화해 보시기를 바란다. 





# 우리 한국인은 얼마나 행복한가



2010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10위 안팎의 세계경제 상위국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회복한 한국은 5,000만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질적 문제와 함께 자살률, 이혼율, 실업률, 부채 비율 등이 보여주는 불행지수는 국민 행복지수를 세계 최하위로 끌어내리고 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 지난달 4.27 재보궐 선거의 결과는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참패, 민주 야권의 대승으로 국민의 불만과 불행한 삶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최근 필자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에 참가해 국민의 불만과 사회통합의 저해 요인으로써 의사소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통합리더십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논의한 적이 있다. 과연 무엇이 한국사회를 갈등과 대립, 그리고 불안한 사회로 빠져들게 하고 있을까?

〈행복 유전자(Happiness Genes)〉의 저자 제임스 베어드와 로리 나델 박사는 '당신은 재미결핍증후군을 알고 있는가?'라는 몇몇 어리석은 문젯거리를 제기한다. 재미가 없으면 인간의 행복을 위해 애쓰는 종교들의 영성도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고 단언한다.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대학의 루트 빈호벤 교수 연구팀은 '0에서 10으로 점수를 매긴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144개국의 평균 행복도를 조사했다.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였고, 그 다음으로 덴마크, 콜롬비아, 스위스, 멕시코 순이었다. 한국을 비롯해 필리핀, 중국, 이란, 인도 등이 중간 순위에 이름을 올렸고, 미국과 영국은 7.0, 7.1의 점수로 멕시코 보다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하나의 세계 행복도 연구조사는 영국 레스터 대학의 에이드리언 화이트 교수가 17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작성한 '세계 행복지도'이다. 이 조사에 의하면 덴마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등이 행복도가 높은 나라로 조사되었다.

미국 23위, 영국 41위, 중국 82위, 일본 90위, 그리고 한국은 102위에 올라 세계 행복지수 하위권에 기록되었다. 88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2002한일월드컵, 피겨스케이팅에서 김연아 선수의 세계 제패, 지난해 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한국이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최근 발표된 각종 사회조사의 어두운 지표들이 '한국인은 행복한가'라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화이트 교수는 한 나라의 행복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건강수준(상관계수 0.62)과 경제력(상관계수 0.52), 교육 수준(상관계수 0.51)을 강조했다. 여기에서도 한국인의 낮은 행복지수를 최근의 건강, 경제, 교육에 관한 사회지수로 엿볼 수 있다.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정치목적'이라고 제레미 벤담이 얘기했지만 최근 영국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 국민의 81%가 벤담의 주장에 동의하며, 경제보다 국민의 행복을 창조하는데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행복 유전자〉의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 인간은 뺨만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아닌가. 2012년은 대선, 총선의 해이다. 이미 정치적 폭풍이 4.27 재보선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경제대통령을 자부하고 경제력 향상에 전력하고 있는 MB정부가 깊이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인생에는 돈보다 더 큰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내총생산(GDP) 뿐만 아니라 국민복지 또는 행복(GWB, GHP)에도 초점을 맞추어 정치적 혁신을 시도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 우리 인간개발연구원이 선도해 나갈 TPT(Total People Technology)의 국민교육정책의 과제가 있다.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교육정책 말이다.

인간개발의 교육적 관점에서 한국인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우리 안의 행복을 키우는 일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에 지양분을 주는 일'이라는 틱 낫한의 깨달음과 '행복으로 가는 문이 하나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닫힌 문만 쳐다보느라 다른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헬렌 켈러의 깨우침과 교훈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면 어떨까. **장만기**



# 동아시아역사(東亞細亞歷史) 왜곡(歪曲)의 시정(是正) 2



탁발선비(拓跋鮮卑) 북위(北魏)  
동위(東魏)-북제(北齊) 534-550-577  
서위(西魏)-북주(北周) 535-557-581

수 문제 양견(楊堅)과  
당 고조 이연(李淵)의 집안은  
북위-서위-북주 선비(鮮卑)  
정복왕조의 핵심 지배씨족이었다.



●홍원탁 교수

칼럼 내용의 근거가 되는 관련 기초 자료와 2차 자료를 검토하고 싶은 독자께서는 <http://www.HongWontack.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탁발선비 북위(386-534)는 고환(高歡)의 동위와 우문태(宇文泰)의 서위로 양분되었다. 우문태는 몽골초원 유연(柔然)의 침략을 막기 위해 북위가 구축한 최전방 육진(六鎮) 중 하나인 무천진(武川鎮) 출신이었다. 일찍이 우문선비 부족이 모용황(慕容皝)에게 정복을 당하면서 우문태의 선조는 모용선비 전연(337-370)을 섬기기 시작했고, 398년에 후연(386-407)의 모용보가 탁발선비에 패하자 북위를 섬기면서 무천진에 정착하게 됐다.

회삭진(懷朔鎮) 출신 고환이 세운 동위는 북제가 된다. 선비 전통이 가장 강했다고 말하는 서위는 557년에 북주가 되어, 577년에 북제를 정복하고, 579년에 진(陳)의 강북 땅을 차지해 잠시나마 북 중국을 재통일할 수 있었다. 수(581-618)는 북주의 후계자로서 천하를 통일했고, 당(618-907)은 단명의 수나라를 승계한 것이다.

북주 대사마 두의(竇毅)의 처는 서위 북주를 세운 우문태의 딸이었다. 구당서를 보면 581년에 양견이 우문태 일족을 제거하고 수나라를 세웠을 때, 이들 부부의 어린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남자로 태어나 외삼촌주 문제(560-578) 집안의 재난을 막지 못하는 것이 정말 한이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당 고조 이연과 결혼을 하여 우문 씨 집안의 원수를 갚는다.

수서는 양견(楊堅 r.581-604)의 조상이 후한의 태위 벼슬을 한 양진에서 비롯한다고 말하지만, 양진의 8대 손으로 모용선비 전연의 북평 태수를 지낸 양현 이전으로 올라가면 구체적인 기록이 전혀 없다. 양현의 아들이며 양건의 5대조인 양원수는 무천진에 자리를 잡고 탁발선비 정복왕조를 섬기기 시작했다. 4대조와 3대조는 북위의 태수였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북위의 장군이었다. 양건의 아내인 문헌황후는 독고신의 딸이다. 독고신은 무천진의 우문태를 섬기며, 서위-북주를 창건하는데 큰 공을 세운 8주국(八柱國)의 일원이었다. 독고신의 맏딸은 우문태의 장자로 북주의 첫 번째 황제가 된 명제(明帝)와 결혼을 했고, 일곱 번째 딸은 양견과 결혼을 했고, 넷째 딸은 당 고조 이연(李淵)의 아버지(暉)와 결혼을 하였다. 양건의 부친인 대장군 양충은 우문태에 의해 수국공(隋國公)에 봉해졌었다. 양견은 자신의 사위인 북주 선제가 죽자, 7살에 제위를 승계한 정제와 우문태 직계 친족들을 죽여 버리고 수나라를 세웠다. 양건의 집안은 선비 정복왕조 지배계급의 핵심 씨족에 속한 것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실사양씨 집안이 한족 조상을 가졌다 해도 모용선비 전연이 370년에 멸망하기 이전즉, 양진의 8대손이 전연의 북평태수가 된 언제인가부터 선비어를 말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양견이 수나라를 세운 581년까지 최소한 211년 이상 선비 말을 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당 고조 이연(r.618-626)의 7대조는 이호(暉)라 한다. 말인즉, 흥노 부족이 오늘날 감숙성 지역에 북량(397-439)을 수립하자, 이호가 훨씬 서쪽에 위치한 동황 지역으로 가서량(400-421)을 세웠다 한다. 북량은 421년에 서량을 병탄했고, 북위는 439년에 북량을 정복해 북중국 통일을 완성한다.

역사가들은 이호를 한족으로, 5호 16국의 하나인 서량을 한족 국가로 분류하면서, 이연을 한족으로 간주한다. 이연의 5대조는 탁발선비 북위의 흥농 태수, 4대조와 3대조는 무천진에 정착한 북위의 장수였다. 이연의 할아버지 이호(暉)는 우문태가 서위-북주를 창건하는데 큰 공을 세운 개국공신 중 한 명으로, 당국공(唐國公)에 봉해졌다. 이연의 처는 우문태의 외손녀였으며, 그녀는 외삼촌이며 우문태의 차남인 북주 무제의 궁중에서 자랐고, 598년에 이세민을 낳았다. 이연의 모친과 수 양제(楊廣 r.604-618)의 모친은 자매 사이였다. 이연은 외삼촌인 수 문제의 각별한 총애를 받았다. 이연은 양건과 마찬가지로 선비 정복왕조의 핵심 지배씨족 출신인 것이다.

우문태의 외손녀가 모친인 당 태종 이세민(r.626-649)의 부인 역시 북위-북주 탁발선비 정복왕조 핵심 지배씨족의 딸이었다. 신당서는 이세민의 문덕황후 장손씨(601-636) 선조가 북위 탁발 씨이며 종실의 정종(宗室 因脫長孫)이라고 기록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실사 이연 집안이 한족 조상을 가졌다 해도 탁발선비가 북 중국을 통일한 439년 이후즉, 李暉의 손자가 북위 흥농태수가 된 언제인가부터 선비어를 말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이연이 당 나라를 세운 618년까지는 이미 179년 가까이 선비 말을 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안지추(顏之推, 530-591)의 안씨가훈(顏氏家訓)을 보면 북주는 고사하고 한화(漢化)가 심해 한족 국가로 간주해도 된다고 흔히들 말하는 북제 조정의 언어 역시 선비어였다. 따라서 무천진 출신 우문태가 세운 북주를 승계한 무천진 출신 양건의수나 이연의당을 한족 국가라고 하는 것은, 북위-서위-북주가 탁발선비 정복국가가 아니고 한족 국가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ㄱㄱㄱ

우리 시대의 대표 인문학자 정민 교수,  
잊혀진 우리 차 문화의 정신과 역사를 일깨우다!



# 새로 쓰는 조선의 차 문화

다산·추사·초의가 빛은 아름다운 차의 시대



화제의  
신간

정민 지음 | 752쪽 | 값 35,000원

다산, 추사, 초의로 이어지는 조선 후기 지성사의 새로운 경지! 우리나라 최초의 다서 『부풍향차보』와 이덕리의 『동다기』 외에 수많은 차 관련 자료와 사료들을 끈질긴 집념으로 발굴, 학계 최초로 소개하여 우리 차 문화사를 100년 앞당긴 정민 교수! 그의 정치한 문헌 해석과 면밀한 검토, 정확한 견해로 우리 차 문화를 집대성했다! 300여 컷에 이르는 국내외 도판 수록, 그중 80퍼센트가 최초 공개! 그동안 답습 누적되어온 차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고, 차계와 학계에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과 의문을 낱알이 파헤쳤다! 우리 차의 중흥조 다산 정약용, 차의 시대를 활짝 연 초의 스님, 차에 대한 애호를 예술로 담아 보급시킨 추사 김정희! 조선 후기 시서화 대가들이 펼치는 수려한 시와 정감 어린 편지 글에서부터 떡차론, 차 효용론, 제다법, 차 무역론에 이르기까지! 잊혀졌던 우리 차 문화와 정신을 부활시키다!

##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18, 19세기 조선의 학문·예술·문화 교류사를 증명한 역작!

차를 통한 18,19세기 지식인들 간 교류는 유럽 살롱문화를 엿보는 것 같다. 차가 우리문화 속에 근사한 장면을 연출한 시대가 있었음을 말하고 싶었다. \_정민 한국의 차문화가 당대 최고의 문화인들과 함께 어떻게 화려하게 부활했는지 새 자료를 통해 생생히 보여준다! \_조선일보 차 문화 르네상스 기록인 동시에 18,19세기 지성사이자, 다산·추사·초의의 도타운 우정 관계를 재구성한 훈훈한 보고서! \_중앙일보 조선 차 주역들의 인연과 이야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원형사진과 이를 탈초한 원문·번역문이 모두 수록, 자료집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_한겨레 조선 차 문화의 재발견, 우리 차 정신을 새롭게 조명한 역작! \_경향신문

정민

한양대 국문학과 교수. 한국한문학 전공. 옛글을 현대적 언어로 풀어내는 일에 몰두해왔다. 문학을 넘어 문화사 전반으로 사유를 확장 중이다. 『다산선생 지식경영법』 『미쳐야 미친다』 『비슷한 것은 가짜다』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발견』 『한시미학산책』 『성대중 처세어록』 『죽비소리』 등의 저서가 있다. 다산, 추사, 초의를 중심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차 문화의 융성을 이 책으로 집대성했다.



# D-day is Coming

기대하라!

패션, 외식, 휴식은 물론 문화, 호텔에서 키즈파크까지-  
서남부권의 라이프스타일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여줄 D-day가 온다

**Everyday D-day, 디큐브시티**



1호선 2호선

**미래를 품은 복합문화공간 GRAND OPEN 2011년 8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허브-신개념 백화점  
서남부 유일의 특급호텔-세련된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  
구로 아트갤러리의 중심-뮤지컬 전용극장  
세계각국의 요리투어-테마식당가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곳-부모코리조테이파크  
도시 속 살아 숨쉬는 자연-디큐브 파크  
트렌드 리더들의 이지트-디큐브 아파트  
취업단과 친환경의 만남-디큐브 원형 오피스

EVERYDAY D DAY

*Heartbeat City*  
d<sup>3</sup> 디큐브시티



신도림역 연결